2022 청소년상담연구 • 231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

책임 연구자 차 주 환
공동 연구자 김 태 선
편여울강
채 민 정
조 은 희
이 승 근
소 수 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31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

인 쇄 : 2022년 12월
발 행 : 2022년 12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4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ISBN 978-89-8234-894-5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 행 사

최근 우리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입으로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 중 다문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은 우리 문화와 결혼이주 부모가 속한 외국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이중문화 토대 위에서 성장하게 되어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좀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다문화 청소년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경험한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관심과 정책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 상담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북한이탈 청소년대상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탈북청소년 중심으로」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위해 필요한 보호자 교육 및 상담개입을 포함하였으며, 청소년상담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환경 구축 및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계개입에 주안점을 두어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현장 활용성을 높여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 정책 및 심리·정서적 특성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개발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은 내년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과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주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다문화청소년기관 상담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동연구자 김태선 교수님과 본원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이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현장의 청소년상담자에게 상담 및 연계 개입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윤 효 식

초 록

우리나라에서 전체 출생 건수 중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수가 중·고등학생 수보다 약 5배 증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다문화 청소년은 우리 문화와 부모가 속한 외국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이중문화 토대 위에 성장하게 되어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모두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라 적응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들이 경험하는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개입 및 적응 관련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개입과 더불어 그들의 보호자 교육 및 상담방법,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연계 개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매뉴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를 넓히고,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효과적인 상담 개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다문화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계까지 포함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해, 기획 및 구성 단계 및 평가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형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개입 매뉴얼의 구성 원리 및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다문화 청소년 개입 관련 매뉴얼과 다문화 청소년의 정책 및 심리·정서적 특성 관련 문헌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 중 성실히 응답에 참여한 11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으면서 다문화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기관 및 다문화 청소년지원기관 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필요한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초안이 개발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초안은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정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매뉴얼은 크게 상담준비, 상담개입, 연계개입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상담준비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 관련 정책, 상담자 준비사항, 상담환경 구축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상담개입에는 다문화 청소년과 상담자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맺고 상담구조화 하여 효과적으로 개입을 위한 방안,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방안,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개입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연계개입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굴경로에 따른 연계개입 방안,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 및 지원 기관 정보,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성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초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3명과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 2명, 상담 및 심리 전공의 학계 전문가 2명 등 총 7명의 현장 및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매뉴얼의 전반적인 평가와 의견으로는 5점 만점 중 매뉴얼 구성내용의 적절성은 4.71점(상담준비단계 4.87점, 상담개입 단계 4.86점, 연계개입 단계 4.43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활용의 적합성은 4.43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4.66점의 수치를 보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매뉴얼에 대한 보완사항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 개입매뉴얼을 최종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 관련 문헌조사, 현행 법령 및 조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의 실태조사 및 FGI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 개입을 위해 필요한 공통사항을 도출하여 구성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둘째, 최근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굴 경로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매뉴얼은 다문화 청소년 발굴 경로에 따른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현장 활용성이 높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 및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 배경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경험하는 사회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매뉴얼은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는 기관의 상담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할 때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와 편향적 사고를 점검하여 다문화 상담역량을 향상시켜 사회정의 옹호자 역할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매뉴얼의 적용 가능한 대상자는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소년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한글로 제작된 상담신청서를 비롯한 다양한 안내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소년까지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입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FGI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 소속된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매뉴얼의 평가 및 자문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의 종사자뿐 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어 :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상담자역량, 이중문화 수용태도, 연계 개입 매뉴얼

목차 ▌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과제 ····· 5

Ⅱ. 이론적 배경 ▌6

1.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 ····· 6
가.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 6
나.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사회 환경 ····· 10
다.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이해 ····· 14
라. 다문화 청소년과 상담 ····· 18
2.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 20
가. 국내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방안 및 프로그램 ····· 20
나. 국외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방안 및 프로그램 ····· 25
3. 시사점 ····· 32

Ⅲ. 연구방법 ▌34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 34
가. 기획단계 ····· 34
나. 구성단계 ····· 36
다. 평가단계 ····· 36
2. 현장 전문가 대상 다문화상담 실태 및 요구조사 ····· 36
가. 실태조사 ····· 36
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 50
1) 조사대상 ····· 50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51
3) 인터뷰 분석 결과 ····· 53
다. 실태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와 시사점 ····· 70
3.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 ····· 75
가. 매뉴얼 구성 원리 ····· 75

나. 매뉴얼 내용 구성 ····· 77
다. 매뉴얼 초안 내용 ····· 79

Ⅳ. 연구결과 ▌81

1. 전문가 평가 ····· 81
가. 평가자 ····· 81
나. 평가 문항 ····· 81
다. 평가 결과 ····· 82
2. 매뉴얼 수정 및 보완 ····· 83

Ⅴ. 논의 ▌86

참고문헌 ▌91

부록 ▌102

Abstract ▌115

표 목차

<표 1>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 7
<표 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6년~2020년) ····· 8
<표 3> 다문화학생 현황(2018년~2022년) ····· 8
<표 4>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연령별 분포 ····· 9
<표 5>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장배경별 연령별 분포 ····· 10
<표 6>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규모 및 증감 현황 ····· 12
<표 7>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정책'의 주요과제별 예산비율과 사업내용 ····· 13
<표 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연구 ····· 22
<표 9> 기타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관련 연구 ····· 25
<표 10> 모듈식 인지행동치료의 구성요소 ····· 27
<표 11> 스토리텔링 회기 ····· 29
<표 12> 이민자 가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가족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30
<표 13>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상담복지기관 실무자) ····· 37
<표 14> 다문화 청소년 상담 경험 유무 및 실시 사례 수 ····· 38
<표 15> 다문화 청소년 상담경험이 없는 이유 ····· 38
<표 16> 상담사가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의 배경 ····· 39
<표 17> 다문화 청소년의 주호소 문제 ····· 40
<표 18> 소속기관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발굴된 경로 ····· 40
<표 19> 다문화 청소년을 연계한 외부기관 ····· 41
<표 20> 다문화 청소년상담과 비다문화 청소년상담의 차이유무 ····· 41
<표 21> 다문화 청소년상담과 비다문화 청소년상담의 차이점 ····· 42
<표 22> 다문화 청소년 상담이 어려운 이유 ····· 42
<표 23> 다문화 청소년의 변화요인 ····· 43
<표 24>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부모 상담 병행 여부 ····· 44
<표 25> 부모 상담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 44
<표 26> 부모상담 시 어려운 점 ····· 45
<표 27> 상담사의 다문화 청소년 개입 교육 경험 ····· 45
<표 28> 상담사가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 개입 교육 내용 ····· 46
<표 29> 상담사가 인식하는 다문화 수용성 정도 ····· 47
<표 30> 소속기관의 다문화 청소년 개입 관련 준비도 ····· 47
<표 31> 다문화 청소년 개입 시 필요한 상담자의 역량 ····· 48

<표 32>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희망 내용 ····· 48
<표 33>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희망 상세 내용 ····· 49
<표 34> 다문화상담에 필요한 사회정의상담 역량 수준 ····· 50
<표 35>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 51
<표 36> FGI 질문지 ····· 52
<표 37>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FGI 분석 결과 ····· 53
<표 38>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구성 ····· 78
<표 39>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초안 세부 내용 ····· 79
<표 40>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평가결과 ····· 82
<표 41>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수정안 세부 내용 ····· 85

그림 목차 ▌

<그림 1>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11
<그림 2>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 절차 ····· 35
<그림 3> 다문화 청소년의 변화요인 ····· 43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다문화지원법이 제정된 해인 2008년 다문화 구성원은 14만 4천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출생 건수 중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체 출생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출생 비중이 2008년 2.9%에서 2017년 5.2%로, 5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국내출생 자녀 126,029명(74.7%), 외국인가정 자녀 32,678명(19.4%), 중도입국 자녀 9,938명(5.9%)으로 전년 대비 총 8,587명(5.4%) 증가하였다(교육통계서비스, 2022). 이중 초등학생 학생 수가 중·고등학생 수보다 약 5배 증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교육기본 통계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 규모가 2012년 46,954명에서 2020년 147,37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2021). 즉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청소년 인구 대비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2022)는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정책은 전체 예산의 13.5%로 전년대비 37.7%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해당되는 세부과제 중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은 다문화 청소년 및 부모상담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과제의 예산은 22.5%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지원과 관련된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과제의 예산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의 정착이나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나라 문화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함께 정체감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 발달 과제이다(Erickson, 1968).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발달과업 이외에 국내 문화와 부모가 속한 외국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이중문화 토대 위에 정체성을 확립해야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은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특성이 있다(김민지, 2018). 즉,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중문화 적응과정에서 가정에서 학교로 환경 체계가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및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외모, 언어, 이중문화에서 오는 혼란, 소수자의 위치로 인한 차별경험은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문화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정주미, 이동형, 2021).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는 소속감, 자존감이 저하되고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철회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철회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모상현, 2018).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응 및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와 문화적응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높은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학교적응과 정신건강,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승경, 양계민, 2012; 이진경, 이혜정, 2019;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Brown & Chu, 2012),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폭력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경, 김종남, 2016; 모상현, 2018; Foster et al., 2015).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업부진, 외모의 차별로 인한 따돌림, 폭력,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박근영, 최유리, 김보라, 2013),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차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 가치관과 정체성 혼란, 언어습득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친구나 교사와의 문제로 학업 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김종남, 2016; 송진영, 배미경, 2015; 전수정, 윤혜미,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와 달리, 다문화 청소년이 생활 전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정하성, 우룡, 2007), 비교적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도 적응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노충래, 홍진주, 2006; 안은미, 2007)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으로 사회적 지지(가족지지와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였고, 이들의 언어능력 및 심리사회적 적응상태는 양호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부적응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응 및 정신건강의 증진하기 위해 이중문화수용 태도,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또래지지), 자아존중감 등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정체성 혼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같은 위험요인을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중문화 수용 태도 및 자아존중감 증진에 초점을 맞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개입 및 적응 관련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박병금(2020)이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특성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다수를 이룬 반면, 이들의 심리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콘텐츠, 즉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최근에 개발된 다문화 청소년 개입 관련 프로그램은 중도입국 초등학생 또는 청소년의 자존감이나 자아탄력성 향상이 주요 내용이며, 연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 이근매, 2017; 박하나, 손현동, 2017).

국외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대상 상담개입은 세대, 장애, 종교, 국적 등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다(D' Andrea & Daniels, 2001). 이중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프로그램(Lyon, et al., 2014; Thordarson et al., 2016), 저연령 청소년 대상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Valenzuela-Perez & Arias Valenzuela, 2014)과 놀이기반 프로그램(Kronick & Cleveland, 2018), 가족 및 학교 기반 개입 프로그램(Patel & Reicherter, 2016)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다문화상담자는 다문화상담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상담역량은 일반적 상담역량과 동일한 상위 요인 아래 위치하지만, 엄연히 독립적인 역량으로 간주되며(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 기존의 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자라고 할지라도, 다문화 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문화상담 역량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가치 및 편견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내담자의 세계관을 가치롭게 여기고,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을 말한다(Sue & Sue, 2013). Sue 등(1992)은 다문화 상담역량 모형을 제안하면서, 상담자의 자기인식, 내담자의 세계관, 적절한 개입이라는 발달적 영역들이 다문화 상담역량의 구성요소

이며, 각 영역 내에 상담자의 신념과 태도, 지식, 기술과 같은 역량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키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문화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문화적 민감성이 부족한 경우, 내담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보여(Jun, 2009), 상담관계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 정체성 혼란, 심리적 소진, 구조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낸다(김혜영, 심혜원, 2014; 위주원, 최한나, 2015).

최근에는 사회 구조와 차별에 대처하는 상담자의 사회정의와 옹호 상담역량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태선, 신주연, 2020; 최가희, 2018).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역량은 기존의 상담 모델에서의 다문화 상담역량뿐 아니라 상담관계에 영향을 주는 권력, 특권, 억압과 관련된 정체성의 교차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강조한다(Ratt et al.,, 2016). 이는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체계의 영향을 동시에 탐색하고 분석하는 관점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개인 책임만으로 귀결할 경우, 자신을 비난하거나 탓하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무기력감 또는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Major, Kaiser, & McCoy, 2003). 반면 사회정의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능력이나 노력의 부족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내담자 문제와 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처방안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비판적 의식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O’ Leary & Romero, 2011), 학업 참여(Ramos-Zayas, 2003)와 진로포부(Diemer & Hsieh, 2008), 정신건강(Zimmerman, Ramirez-Valles, & Maton, 199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매뉴얼에는 상담자가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담자의 자기점검을 통해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증가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개입에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정의상담의 관점에서 청소년 상담자의 다문화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상담자들의 다문화 상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2. 연구과제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 현장에 활용 가능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을 개발한다.

둘째, 청소년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된 매뉴얼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

가.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정부 부처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은 각기 다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24세 이하인 자를 다문화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내린 다문화 청소년 외에도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이외에도 중도입국청소년, 재외국민자녀,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포함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양계민 외, 2019).

사회적으로는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다문화 청소년으로 통용하기도 한다(양계민 외, 2021). 출생지에 따라서 국내출생자를 '다문화 청소년' 로 분류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한 국외출생자를 '이주배경청소년' 이라고 구분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다문화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을 별개의 범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토대로 '9세-24세의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내로 이주한 배경을 가진 자' 를 다문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다수는 국제결혼을 통해서 국내에서 출생한 청소년과 국외에서 출생하고 국내로 입국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나누어진다(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부모의 배경과 청소년의 출생지에 따라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구분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국내출생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국외출생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출처: 20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학자, 연구에 따라서는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분류하기도 함

주요부처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유형은 부처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목적과 업무에 따라 상이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를 조사하고, 교육부에서는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에서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두 통계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라는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양계민 외, 2021).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부터 매년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의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 자녀(19세 미만)로 정의하며, 국내외 출생 외국인가정자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현황을 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 출생 외국인주민 자녀가 251,977명(94.6%),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14,344명(5.4%)로 전년 대비 총 1,695명(0.6%)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21).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 연령(만 7~12세) 40.3%(107,265명), 미취학연령(만 6세 이하) 39.8%(105,939명), 중고생 연령(만 13~18세) 19.9%(53,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근소한 차이지만 미취학 연령을 제치고 초등학생 연령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9년 미취학 연령 43.9%, 초등학교 연령 39.1%, 중고생 연령 16.3%). 출생지에 따른 구성비는 전년도와 유사했다(2019년 국내 출생 95.2%, 귀화 및 외국 국적 4.8%). 최근 5년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6년~2020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명(수)	201,333	222,455	237,506	264,626	266,321

출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21)

교육부에서는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는 2012년부터 다문화 학생 현황을 포함하여 공표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은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로 나누어진다. 2022년에는 국내출생 자녀 126,029명(74.7%), 외국인가정 자녀 32,678명(19.4%), 중도입국 자녀 9,938명(5.9%)으로 전년 대비 총 8,587명(5.4%) 증가하였다(교육통계서비스, 2022).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6.2%(111,640명), 중학교 23.5%(39,714명), 고등학교 9.9%(16,744명), 각종학교 0.3%(547명) 순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초등학교 비중은 낮아지고(3.4% 감소), 중학교(2.3%), 고등학교(1.0%)의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 및 부모의 국적에 따른 구성비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2021년 국내출생 76.3%, 외국인가정 17.8%, 중도입국 6.9%).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다문화학생 현황(2018년~2022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생 수(명)	122,212	137,225	147,378	160,058	168,645

출처: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 연도별 다문화 학생 수(교육통계서비스, 202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외국인주민 미성년 자녀만 포함이 되고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의 다문화학생 현황은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9세~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기의 다문화 청소년은 위의 두 통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후기청소년기에 속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공표되는 통계는 전체 다문화가구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값이며, 다문화가구 자녀의 경우에

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도 조사부터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다문화가구 자녀와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개념은 동일하다(양계민 외, 2021). 다만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사대상을 포함 또는 제외하였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다문화가구 청소년 자녀의 연령 분포를 보면 9~11세가 17.9%, 12~14세가 13.5%, 15~17세가 6.2%, 18~24세가 6.3%로 나타났다. 2018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다문화가구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연령별 분포

구분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	합계
2018년	16.3%	8.6%	5.8%	4.9%	94,524명
	43,248명	22,787명	15,469명	13,020명	
2021년	17.9%	13.5%	6.2%	6.3%	127,848명
	52,081명	39,322명	18,087명	18,348명	

출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9),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 재구성

다문화가구 자녀는 성장배경에 따라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거주 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으로 나눌 수 있다. 다문화가구 청소년 자녀의 성장배경별, 연령별 상세한 분포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장배경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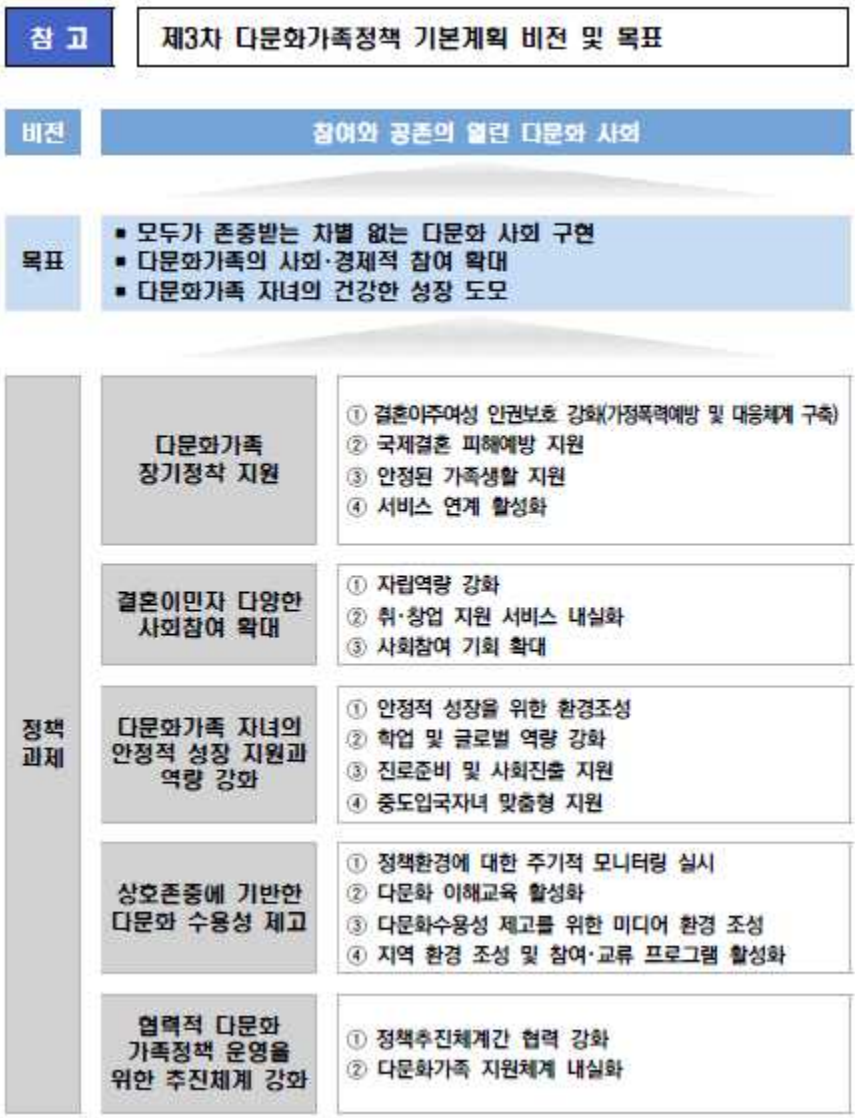
구분			국내에서만 주로 성장	외국 거주 및 성장			전체
				소계	외국 거주 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	
2018년		계	79,189명	15,335명	8,816명	6,519명	94,524명
	연령	9~11세	49.4%	27.1%	31.4%	21.2%	45.8%
		12~14세	23.8%	25.9%	28.9%	21.9%	24.1%
		15~17세	16.0%	18.0%	14.8%	22.4%	16.4%
		18~24세	10.8%	29.0%	24.8%	34.5%	13.8%
2021년		계	116,202명	11,646명	8,342명	3,304명	127,848명
	연령	9~11세	42.7%	20.7%	19.7%	23.3%	40.7%
		12~14세	30.6%	32.2%	33.0%	30.2%	30.8%
		15~17세	12.3%	32.7%	37.3%	21.0%	14.2%
		18~24세	14.4%	14.4%	10.0%	25.5%	14.4%

출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9),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 재구성

나.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사회 환경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2010~2012)이 시행된 이후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2012~2017)을 거쳐 현재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2018~2022)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로서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를 정립하였다.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학교 학습지원 등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사업과 이중언어 교육 관련 사업이 실행되었다.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는 그동안 실시되었던 사업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연령 증가를 반영하여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증가 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등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김지영, 이윤석, 2021; 하여진, 2021).



<그림 1>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출처: 2022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22)

2022년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6.2% 증가되었고, 이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정책과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37.7% 증가한 규모이다(여성가족

부, 2022).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과제 예산의 증가율과 2022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다문화 청소년이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규모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예산	비율	예산	비율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384,160	65.4%	522,027	70.4%	35.9%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63,423	10.8%	47,283	6.4%	-25.4%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72,500	12.3%	99,801	13.5%	37.7%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17,286	2.9%	15,068	2.0%	-12.8%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32,284	5.5%	41,790	5.6%	29.4%
(대책과제)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지원	17,558	3.0%	15,320	2.1%	-12.7%
합계	587,210	-	741,289	-	26.2%

출처: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22) 재구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정책의 주요 과제는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등 네 가지이다(여성가족부, 2022). 주요 과제별 예산 비율과 사업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정책'의 주요과제별 예산비율과 사업내용

주요과제	예산비율	사업내용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22.5%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상담 지원 강화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40.8%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진
		국제교류 프로그램(청소년국가간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 참여 활성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20.8%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다문화학생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강화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직업교육훈련기관(다문화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 등)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15.9%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다문화 청소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출처: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22) 재구성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과제는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부 사업에는 한

국어 및 다문화 배경 부모의 모국어 교육과 학업 지원 등 언어/학업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상담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은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의 정착이나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지원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이해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시기로(Erikson, 1994)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함께 정체성 형성의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이현주, 강현아, 2011), 다문화 청소년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 외에도 부모가 속한 나라의 문화와 현재 자신이 속한 한국 문화의 이중문화 토대 위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 시기 다문화 청소년들은 외모, 국적, 언어와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른 점을 경험함으로써 혼란을 겪게 되고, 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김민지, 2018; 윤지영, 허은정; 2017; 이희정, 2018; 조영달, 2006). 또한 이중문화 적응 과정에서 가정에서 학교로 환경 체계가 확장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스트레스 요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학교나 지역사회와 같이 비다문화 청소년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외모, 언어, 이중문화에서 오는 혼란, 소수자의 위치로 인한 차별경험은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문화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정주미, 이동형, 2021).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는 소속감,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스스로를 철회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철회하는 행동양상을 발달시킬 수 있다(모상현, 2018). 사회적 위축이 지속될 경우, 상호작용에서의 철회, 회피적 행동으로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잃게 되며, 만성화될 경우 낮은 자존감, 우울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Goodwin, Fergusson, & Horwood, 2004) 또래관계로부터 배제되거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김경은, 최은희, 2017). 청소년기는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의 맥락보다 사회적 관계의 영향이나 또래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이

친구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경우 또래관계 문제가 경감되고 긍정적 자아정체감 발달이 촉진되며(Bishop & Inderbitzen, 1995), 사회적으로 덜 위축된다는 연구(이정숙, 송화진, 2014)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관계와 친구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관계 변인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 문제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문제는 다른 청소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에 대화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우울감이 낮고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나아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효진, 2019).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 출신 부모와 한국인 부모의 사용 언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 정체성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부모-자녀 간 대화 비중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발달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정주미와 이동형(2021)의 연구에 의하면,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특히 한국 출신의 아버지와 대화 비중이 높을수록 다문화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긍정적인 다문화정체성을 지닌 다문화 자녀의 경우, 외국인 출신 어머니와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내면화하여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적응에 한국인 출신 부모의 영향력이 더 강하며 상대적으로 외국 출신 부모의 관여가 미비함을 시사하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과 다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해 부모가 이중언어 학습, 한국 문화·제도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Berry(1997)는 문화적응과정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적응과정이론에 따르면 문화 간 접촉 과정에서 개인, 집단은 여러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상황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Berry(1997)는 문화접촉 과정에서 개인이 스트레스 요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문화적응 전략은 문화적 정체성, 새로운 문화와의 관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적 정체성은 개인이 사회문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자신이 포함된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는 태도를 의미한다. 관련 개념으로는 국가정체성이 있는데, 국가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소속, 애착을 의미하는 용어

이다(이희정, 2018). 세계화 시대에 사회 내 다양한 요소들을 한 국가 단위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김민지, 2018), 국가정체성이란 다문화사회와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잘 통합하여 다루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외국인 부모의 국가정체성의 지속적 영향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거나 거주국가가 달라짐에 따라 국가정체성을 주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이 해당 국가의 시민으로서 참여와 관련된 개념이란 점을 생각해 볼 때(오수웅, 201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국가정체성의 발달은 향후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 하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잘 통합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문화와의 관계이다. 새로 접촉한 사회의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원하는지,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지키거나 포기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문화적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기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통합 전략’이라 한다. 반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집단의 사람들과 잘 관계 맺으려는 것은 ‘동화 전략’, 모국 문화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의 참여는 배제하는 것을 ‘분리 전략’, 모국 문화의 정체성도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주변화 전략’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적응의 관련개념으로는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있다. 이중문화수용 태도란 어떤 하나의 문화에 우위를 두지 않고 양쪽 문화를 모두 지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Nguyen & Bener-Martinez, 2013). 1990년대 초기 이중문화 배경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으며,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이중문화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행동 문제와 같은 부정적 문제를 보일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강화, 배은경, 2018). 하지만 이중문화배경이 문화적응의 위험요인은 아니며, 서로 다른 문화를 통합, 수용하려는 태도가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보다 높은 문화적응,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과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강재원, 2012;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이중문화수용 태도는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되며(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김승경, 양계민, 2012),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진경, 이혜정, 2019;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이중문화수용 태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다문화 요인, 심리적 요인을 통해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심리학적 요인은 성별이 대표적으로, 여학생일수록 이중문화수용성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거주 문화와 외국인 부모 문화 모두를 수용하는 통합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2006). 그러나 남학생이 이중문화 환경에 더 잘 적응했다는 연구(Liebkind, 1996) 등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 요인이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이은정, 2019), 부모 나라의 언어 사용 능력은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므로 이중문화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장남혁(2016)의 연구에서 다문화 자녀의 모국방문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 연구를 볼 때, 부모 모국 문화의 접촉이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학교생활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성과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최미례, 이인혜,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또한 부모-자녀의 원만한 대화와 상호작용이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Park & Yoo, 2018), 교사나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를 볼 때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국가정체성 형성에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중문화수용과 국가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접촉으로 발생하는 일상사건에 대한 반응 (Sam & Berry, 2006)으로 우울, 분노, 정체성 혼란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 문화와 외국인 부모의 문화 차이, 언어구사 능력으로 인해 생활규범, 가치관, 행동방식에 있어 또래와 차이를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교사와 친구관계, 학교적응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수경, 2020). 만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가 가중되거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모상현, 2018), 청소년 비행, 일탈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문화적응태도, 지각된 문화적 거리감, 경제문제, 타 문화와의 문화적 양립 문제, 지각된 차별 문제와 소외감, 언어문제, 사회경제적 가용자원 등이 있다(이승종, 1995; 모상현, 2018).

라. 다문화 청소년과 상담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사회 초기부터 다문화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와 편견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오계택 외, 2007).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도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일민족 사회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지고 있으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신념과 인식은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잡지 못함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19). 예를 들어,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이해하기보다 편견의 시각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다문화 청소년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할 타자로 보고, 우리와 다르게 분리시키고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경자, 2017).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태도를 다문화 청소년도 인식하고 있다. 양계민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 배경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 사례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경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외모가 한국인과 차이가 없는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외모에 차이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조민식, 송시형, 2011; 한상철, 2012).

이러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편견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적응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편견'은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번 형성되면 쉽게 수정되기 어려워 한 사람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조혜영 외, 2007). 예를 들어,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 나아가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적응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체계에 대한 반항으로 비행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김석준, 2015; 어홍선, 이종숙, 2018; 이유신, 김한성, 2014; 허청아, 그레이스정, 201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출생률이 저하되고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적응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소수집단인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고유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체계가 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담자 역시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편향된 인식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이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를 느낀다면, 또 다시 편견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상담 연구에서 이러한 차별 경험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주류와 비주류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며, 이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이 확산되고 있다.

Bronfenbrenner(1979)는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로 구성된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하는 생태학적 모델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북미에서는 상담자들이 개인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돌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변화할 수 있도록 개입 영역을 넓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Vera & Speight, 2003). 국내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관점으로 사회정의상담 이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 이론은 소수의 다문화 청소년이 차별을 넘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상담 목표로 하여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가희, 2018). 이를 위해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지지와 격려를 하는 동시에 상담자 스스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에 대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민감성과 같은 역량을 키워야 한다. 즉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특권과 억압에 대한 자기인식, 사회문화적 요소가 소수자인 다문화 청소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식,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참여 기술 등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Lewis, Arnold, House, & Toporek, 2003).

하지만 상담자들이 사회정의상담 역량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상담 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상담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개인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상담 방법만으로 이들을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다(임은미, 구자경, 2019; 최가희, 2018). 이는 상담자 교육에서 다문화 배경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사회정의상담과 같은 최신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김인규,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상담 관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기 전에 상담자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상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을 안내하여,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가. 국내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방안 및 프로그램

국내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개입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박병금, 2020).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아직까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다(양미진 외, 2012).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박병근, 2020)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학교적응 및 사회문화적응 분야가 많은 반면, 프로그램개발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위험요인을 밝혀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 청소년상담의 중추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5편의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을 연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연구대상별로는 3편이 북한이탈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으며,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1편,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를 위한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별 주요 특성은 <표 8>에 제시하였다.

북한이탈 또는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상담개입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특징은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발달과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가치관이나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도우려 했다. 이들 연구가 이루어진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도에 이루어진 북한이탈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치명료화 훈련이 사회적 응도, 학습동기, 자아실현, 자아개념, 교실 적응행동, 가치각성, 진로성숙, 가치명료성, 자아존중감 및 동조성, 도덕성 발달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의 가치와 정체감을 검토해보고 자신이나 미래, 진로와 연결할 기회를 주어 심리적 적응을 돕는데 목적을 두었다(금명자 외, 2005). 2012년도 연구(최보영, 김현아, 김현우, 2012)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과 유사하게 학

업, 대인관계, 진로,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보이며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심리·사회적 성장과 남한생활의 적응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담자 역량 강화 매뉴얼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기술 습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상담자가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 역할 등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2016년도에 이루어진 연구(서미, 양대희, 김혜영, 2016)에서는 탈북청소년이 한국 생활 적응과정에서 공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문화차이로 인한 가치관 혼란,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자신감 저하,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으면서 학교부적응 문제가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또래상담자들과 탈북청소년과의 긍정적 접촉을 도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부모를 다룬 연구(송미경, 신효정, 이은경, 2008)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부모의 효능감 증진과 성숙한 부모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머니용과 아버지용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하였으며, 부부간 친밀감도 증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초등 시기 자녀의 양육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학교생활이나 학업지도 방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워크시트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히 두드러졌다.

본 연구의 방향성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진 연구는 2011년에 이루어진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연구이다. 양미진 등(2011)은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및 이주노동가정 청소년 등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상담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상담자용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지원모델을 기반으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모형을 5단계(준비시키기-초기면접-연계-심리상담-추수지도)로 구성하였고, 상담모형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역량과 허브(Hub)로서의 역할이 필수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담자가 다문화 청소년 부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다중역할을 요구하면서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다문화 청소년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는 것,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시기별로 느끼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생활지도, 멘토링, 연계지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연구

연도	연구제목 (저자)	대상	회기	초점 요인	주요내용
2005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III (금명자, 주영아, 김상수, 이태성, 이자영)	북한이탈 청소년 (20~25세)	8회기	사고방식과 가치관 차이에서 기인한 심리적 부적응	탈북 청소년을 위한 가치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 1회기: 선택의 중요성과 어려움 이해 - 2회기: 신문잡지 활용하여 남한사회 가치 검토 - 3회기: TV공익광고 활용한 남한의 생활태도 검토 - 4회기: 적응에 성공한 탈북자의 성공과정 영상 보기 - 5회기: 가치와 진로 연결하여 체험계획 세우기 - 6회기: 진로, 정보 보완 후 체험 실시 - 7회기: 체험 후기로 진로 수정하기 - 8회기: 동기와 자신감 확인하기
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송미경, 신효정, 이은경)	부모(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	어머니용 6회기 (주 1회, 60분)	부모로서 효능감	- 도입부: 참가자간 친밀감과 동기 및 응집력 강화 - 2-3회기: 자녀 및 부모-자녀 간의 관계 이해 *초점: 학교생활 및 학업지도에 관한 유용한 정보제공 - 4회기: 자녀 발달단계 이해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증진 방법 - 5-6회기: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 향상 위한 자기점검
			아버지용 6회기 (주 1회, 70분)		- 1회기: 친밀감 증진 및 동기부여 - 2-3회기: 부부관계 증진 *부부간 친밀감 및 의사소통 강화 등에 대한 내용 - 4-5회기: 자녀와의 관계 증진 - 6회기: 아버지로서 자기점검
2011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 상담자용	상담모형 5단계	*대상별 접근	- 통합지원모델 기반의 상담모형 설정

연도	연구제목 (저자)	대상	회기	초점 요인	주요내용
	상담매뉴얼 개발 (양미진, 고홍월, 이동훈, 김영화)			- 초등: 친구 문제 어려움 - 중등: 학업 문제 *이주기간별 접근 - 초기: 언어 문제,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 적응기: 학업문제, 진로선택, 대인관계	*전제조건: 상담자 다문화 역량과 허브로서의 역할 - 1단계: 준비시키기 - 2단계: 초기면접 - 3단계: 연계 - 4단계: 심리상담 - 5단계: 추수지도 - 매뉴얼 '다가감' 구성내용 - 제 1장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 현황, 호소문제 이해, 상담의 기초 - 제 2장 개입과정의 실제 *다문화 청소년 개입 과정별 세부 방법과 팁 제공 - 제 3장 다문화 상담시 고려할 점과 연계정보
2012	북한이탈 청소년대상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대인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최보영, 김현아, 김현우)	북한이탈 청소년(남한 정착 후 3년 이내인 경우)	집단 (8회기, 순차적 진행)	- 심리적 특징: 불안, 정체감 혼란, 죄책감, 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열등감 - 사회적 특성: 또래관계, 감정표현 어려움, 가족해체와 부모 역할 부재	- 1부(1~3회기): 상담자와 북한이탈 청소년 간 신뢰관계 형성 - 2부(4~5회기): 대인관계 어려움과 대처법 *역기능적 사고 탐색 및 점검 - 3부(6~8회기):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회기술훈련 - 4부(종결)
		상담자	(매뉴얼)	신뢰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전 지식	- 상담자 사전교육용 매뉴얼 -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기본지식 - 상담자 태도 및 역할
2016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탈북 청소	탈북 청소년	집단(4회기, 5~60분, 순차적 진행)	또래관계, 고정관념, 편견, 금정적 문화에 동화, 다문	-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 1회기: 낯섦① 고정관념 및 편견 점검하기 편견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험하기

연도	연구제목 (저자)	대상	회기	초점 요인	주요내용
	년 중심으로 (서미, 조영아, 양대희, 문소희, 이은별, 김혜영)			화 수용성, 성격강점	- 2회기: 낯섦② 탈북청소년 신분노출 어려움 이해 문화수용성 이해 - 3회기: 만남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 상호 이해 도움주는 친구 되기 - 4회기: 성장 자신의 성격특성 이해하기 역경 속 성장 경험 나누기 다문화 역량 증진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외에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연구로는 미술치료를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정서표현 연구, 또는 상담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하나, 손현동, 2017; 박병금, 2020).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연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상담 및 심리적 관점에서의 요구보다는 사회정책적 시행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여서 향후 다문화 진로상담 연구를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다문화적 특성 이해를 기반한 상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김진선, 김영순, 2020).

다문화 청소년 패널을 통해 종단연구를 해온 양계민 등(2021)은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은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간의 발달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교육부 과제로 포함하여 학교 내 정서적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위(Wee)클래스나 위(Wee)센터이지만, 전문적 지원 및 학교 밖의 지역 연계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내에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9> 기타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저자)	대상	회기	주요내용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홍월, 황매향, 강유임)	다문화 가정아동	6회기	- 1회기: 친구만나기(경청, 첫마음) - 2회기: 나는 누구인가(정서인식, 경청) - 3회기: 부모와 나(타인조망, 나-메시지) - 4회기: 친구와 나(타인조망, 공감과 수용) - 5회기: 선생님과 나(타인조망, 자기주장) - 6회기: 달라진 나(사회적자아, 자아존중감, 문화정체성)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김정옥, 이근매)	중도입국 청소년 14~19세	10회기 (주 2회, 90분)	- 콜라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 (초기) 친밀감 형성 - 1~2회기: 별칭 짓기, 좋아하는 것 선택 - (중기)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수용, 자기효능감, 목표와 희망 - 3회기: 희노애락 - 4회기: 나의 고향 - 5회기: 강점 - 7회기: 10년 뒤 나의 모습 - 8회기: 미래의 직업 - 9회기: 행복한 나의 가정 - 10회기: 소망나무, 작품 감상
2017	중도입국 초등학생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을 중심으로 (박하나, 손현동)	초등 5학년 남학생	10회기 (7주)	- 적응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구성영역: 관계형성, 자기수용, 타인수용

나. 국외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방안 및 프로그램

국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상담개입은 앞서서 논의되는 국내의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 미국의 다문화 청소년 상담은 인종 및 민족 뿐 아니라 세대, 장애,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토착유산, 국적, 성, 외상 등의 다양한 정체성(D' Andrea & Daniels, 2001; Hays, 2008)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문화상담에서 포함되어 논의되거나 이민자 또는 이민자의 자녀를 대상

을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 본 장에서는 미국 이민자 청소년 또는 이민자의 자녀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개입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연령이 낮은 이민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한 놀이기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접근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민자 청소년의 상담개입에서 고려해야할 가족, 학교와 관련된 주제와 그에 따른 가족 및 학교 기반 프로그램(Patel & Reicherter, 2016)들을 논의하였다.

1) 인지행동치료 기반개입

인지행동치료(CBT: Cognitive-Behavioral Therapy)는 내담자의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효과적인 심리치료 개입 방안으로 알려졌다(Benish, Quintana, & Wampold, 2011). Hays(2009)는 이민자 청소년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할 때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이 개인 내적인 것 때문인지 환경적인 이유인지를 구분하고 내담자의 차별이나 억압의 경험을 말할 때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경험과 자각이 어떠한 기저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민자 청소년들이 모호한 부정적 행동을 차별로 인식할수록 더 많은 심리적 부정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 사건과 차별을 연결짓는 사고 과정에 대해 탐색하고 의미를 재해석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치료개입이 될 수 있었다(Patel et al., 2015). 또한, 이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 상담개입에서는 내담자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이해는 상담개입의 계획, 진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적용되었다. Lyon 외(2014)는 인지행동 치료가 모듈식으로 구성되고 적용될 수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Thordarson 등(2016)은 모듈식 인지행동치료 개입의 공통요소를 모아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모듈식 인지행동치료의 구성요소

모듈	치료 목표
심리교육	심리교육 치료와 정신병리학에 대한 이해 증진
대상 모니터링	정신병리의 구체적인 징후에 대한 알아차림 향상, 다른 모듈에서 사용할 데이터 수집
기초 행동 과제	명시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한 기술 습득
인지 재구조화	인지 왜곡을 줄이고 정신적 유연성 향상
노출	습득한 기술을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한 경험적 학습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듈식 인지행동치료는 심리교육, 대상 모니터링, 기초 행동과제, 인지 재구조화, 노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심리교육은 이민자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상담개입에서 일어날 일과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심리교육은 상담에 익숙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중요하며, 상담개입의 과정을 소개하고, 상담과정에서 무엇을 예상될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창의적인 방법으로 심리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책, 영화, 노래, TV 프로그램 등의 영상자료나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도 있다(Friedberg & Brelsford, 2011). 둘째, 대상 모니터링은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민자 청소년과 부모가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증가시키고 치료계획을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민자 청소년 내담자와 부모에게 생각, 감정, 행동 및 생리학적 감각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특히 호소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적인 생각, 특정 신념을 끌어내는 상황, 인지 왜곡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사고 기록지가 많이 활용된다. 셋째, 기초 행동 과제는 명시적인 문제행동에 적용하여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및 사회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필요한 행동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이민자 청소년들은 신체증상에 대한 호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변화는 더욱 중요하다(Anderson & Mayes, 2010). 근육이완 훈련, 복식호흡과 같은 이완 훈련이나 사회성 증가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인지 재구조화는 내담자의 사고 내용/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들은 인지적 왜곡을 줄이고 더욱 유연하게 생각하는 훈련으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 재귀인, 탈 파국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출 모듈은 내담자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종합하도

록 돕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고양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상담을 통해서 배운 대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다양한 접근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이민자와 이민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기반으로 한 상담개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모래놀이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접근법이다(Herati & Meyer, 2020). 먼저, Kronick 외(2018)는 난민-이민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모래놀이 내러티브의 효과를 연구했다. 아동들은 모래 상장에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로 만들며 표현하였다.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 내담자인 아동은 자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모래 쟁반을 사용했고 그 세계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다. 연구결과 아동들은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등의 방과 후에 남는 것을 주요 스트레스로 표현하였다. 한편, 라틴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접근법은 Valenzuela-Perez와 Arias Valenzuela(2014)가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행된 스토리텔링 접근은 라틴계 아동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필요를 잘 나타내주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은 “욕구의 꽃(flowers of needs)” 만들기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욕구를 확인하였다. 참여 아동들은 다양한 크기와 색의 꽃잎으로 꽃을 만드는데, 각 꽃잎은 다른 심리적 욕구를 나타내고 꽃잎의 색은 욕구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고 크기는 중요성을 나타냈다. 난민-이민 아동들은 신체적 편안함 및 생존, 연결 및 사랑, 평화와 고요를 가장 중요한 욕구로 꼽았다.

<표 11> 스토리텔링 회기

회기	회기활동
1	워밍업 활동 필요의 꽃 소개 참여자의 꽃 만들기
2	이야기 읽기 주인공의 필요의 꽃 만들기 이야기 그리기
3	이야기 읽기 이야기 극화하기
4	이야기 읽기 이야기 다시쓰기 주인공의 필요의 꽃 만들기

출처: Exploring refugee children's psychological needs through storytelling(Valenzuela-Perez & Arias- Valenzuela, 2014

또한, 놀이 기반 프로그램(Play-based programs)으로 '무지개와 함께 놀기(PWR: Playing With Rainbow)'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캐나다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가 고위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한 놀이 기반 프로그램으로 총 2단계로 이루어져있다. 1단계에는 5세에서 13세의 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쟁과 관련된 외상, 불안, 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자존감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12주간의 예술과 놀이 집단프로그램이며, 2단계는 13~19세의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3) 가족에 대한 고려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서 가족에 대한 고려와 개입은 필수적이다. Kia-Keating 외(2016)는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서 가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표 12>와 같이 가족관련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2> 이민자 가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가족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위험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나 의료 기관 등의 주요 자원, 새로운 언어 학습, 사회적 네트워크 재구축 등에 대한 지식 부족 등 새로운 환경 탐색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
문화적응 격차	이민자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 및 행동 습득 비율의 성격과 정도의 차이. 어떤 가정에서는 문화적응 격차가 가족역동과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문화적응 관련 갈등	자녀와 부모의 문화적 가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 일상적인 갈등과는 달리 문화적 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은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일부 가정에서는 적응의 더 나은 예언변인이 되기도 함
차별	자녀/부모의 이민 여부, 인종/민족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 경험 이민자 가족의 정신 건강에 차별이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대 간 연구 결과 자녀의 차별에 대한 해석과 준비에는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함
폭력에 대한 노출	이민자 가정은 이주 전, 이주 중, 이주 후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외상 후 증상을 포함한 부모의 정신건강은 특히 난민과 전쟁에 영향을 받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아동의 취약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 크게 관련 있음. 이민자 가족은 재정착하는 공동체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적 상태	미등록 아동 또는 부모는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보건, 금융,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며 대체로 빈곤한 환경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
가족의 별거	가족 간 별거의 성경에 따라 영향이 달라짐.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별거 기간, 자녀가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여부, 별거 중 접촉 여부, 비부모 양육자의 자질과 지원 여부 등이 있음
문화/언어 중개 (language brokering)	자녀가 이민자를 위해 하는 다양한 활동 의미함.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는 부모(문서 번역, 건강 예약, 학교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보호요인	
부모 고향 문화의 사회화	문화·민족·인종 사회화에 종사하는 부모는 문화·민족적 자긍심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아이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
가족 응집력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구조보다 긍정적인 성과(예: 사회성, 자기효율성, 자존감 등 향상)와 관련이 있음
가족 지원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은 이민자 자녀와 부모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함.

출처: Family factors: Immigrant families and intergenerational considerations(Kia-Keating et al., 2016)

4) 학교기반 개입

미국에서는 학교를 통해 다양하게 이민자 청소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eehler 외(2012)는 학교기반 상담개입으로 CATS(Cultural Adjustment and Trauma Services)를 소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CATS는 심각한 외상에 노출되었거나 문화적 응이 필요한 이민자 청소년 또는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1) 관계 형성, 2) 아웃리치 서비스, 3) 포괄적인 임상 및 사례 관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CATS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혹은 이중 문화 배경을 가진 상담전문가와 "문화 중개인" 이 필요하다. 문화중개인은 이민자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유연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자신의 역할의 모호성을 잘 견디며 학생과 학생의 가족을 다양한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였다. CATS의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CATS의 상담가와 문화중개인이 학교 교직원과 이민자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중개인은 이민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며 교사나 이민자 학생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전문가와 문화중개인은 학교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교사들에게 문화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언과 상담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아웃리치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성 문제가 만성이 되지 않고 경미한 문제가 중대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상담서비스는 앞서 했던 임상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중개인과 협의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앞선 임상평가에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은 임상 의사가 문화중개인과 협의하여 수행한 공식 임상 평가에 기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직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했다. 상담에서는 재정착 우려 사항 및 기타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공감적 경청, 타당화와 같은 지지적인 상담 기법을 사용하며 가족을 위한 상담도 제공한다. 학부모교육에서는 상담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Herati와 Meyer(2020)는 캐나다에 있는 난민-이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기반 혹은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을 개관했다. 연구 결과 학교, 지역 사회 및 가족 간의 협력이 난민-이민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개입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당국과 소외된 인구 간의 신뢰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중개인과 통역사 및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교 교사와 교직원이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여러 학교기반 프로그램 중에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드라마 기반 프로그램(Drama-based programs)이 있다. Russeau 외(2012)와 Rouseau 외(2014)의 연구에서 학

업 지연이 나타난 난민-이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라마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12주간의 드라마와 결합된 언어 알아차림 활동을 통해 새롭게 이민 온 1세대 청소년들은 호소하던 문제가 감소하고 역량이 강화되었다. 12주의 프로그램은 크게 2개의 활동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는 워밍업 활동으로 1-2회기는 집중하여 듣기, 비언어적 표현 등을 통해 집단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웃음과 상상력을 사용하여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둘째는 즉흥극 작업이다. 집단원들이 한 주 동안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극적 방법을 통해서 상황을 설정하고 극을 만든다. 이러한 학교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워크숍은 이주 기간이 짧은 새로운 이민자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도전을 재정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업 지연을 개선하고 이 그룹의 정서 및 행동 장애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2세대 이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2주 극장 표현 프로그램의 정서 및 행동 문제 감소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는 2세대 이민자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삶의 역경을 경험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보다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Russeau et al., 2014).

3.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최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책 및 지원 방안도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SNS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이 수월하고, 우리나라에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청소년 상담자들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 또한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상담자 역량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여, 매뉴얼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모가 속한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며 균형을 이루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갖는 것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문화적응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중재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Park & Yoo, 2018). 이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요문제 및 심리·정서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의 이중문화수

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지지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우울감이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 향상과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신효진, 2019).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 배경과 문화적 특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효과적인 상담 개입이 가능하다. 상담자 역시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김태선, 신주연, 2020).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개입을 위해 효과적인 부모개입을 포함하여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할 때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맥락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상담 이론은 내담자 개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상담에서는 내담자 문제를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 구조와 체계 변화가 수반되어 함을 강조하는 사회정의 상담이론이 대두되고 있다(김태선, 신주연, 2020; 임은미, 구자경, 2019; 최가희, 2018). 사회정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 개념을 통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문화 이슈를 인식하고 개입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과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귀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비난하여 자존감을 낮아지는 것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내담자가 여러 측면의 사회적 정체성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와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을 통합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김태선, 신주연,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상담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심리·정서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III. 연구방법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해 상담심리 박사 1명, 교육학 박사 2명, 교육심리 박사 수료 1명 등 총 7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연구팀 구성 후 다문화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인식,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준비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상당경험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관련 문헌연구를 통한 고찰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 설문지를 구성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중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구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 절차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가. 기획단계

다문화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 구성 후 기존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였고, 다문화 청소년 상담 개입 시 적용되는 국내·외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연구팀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부모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적절히 균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렵고, 부모, 사회 환경과 같은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지지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상담자들이 자신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림 2>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 절차

연구팀은 다문화 청소년 상담 현장의 경험적 자료를 얻고자 전국의 청소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다문화 청소년 상담 경험이 다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법, 상담자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인식,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위한 개인 및 상담기관의 준비도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 사례 경험이 많은 현장 전문가

10명을 추천받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팀은 FGI 분석 결과를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에 반영하였다.

나. 구성단계

본 매뉴얼 구성단계에서는 연구팀이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 제고,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심리·정서적 개입 방안과 이들이 지지체계 구축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다. 평가단계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매뉴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내용을 구성한 후 매뉴얼을 사용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학계 전문가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평가 내용은 매뉴얼 전체 만족도와 활용도, 내용 충실도, 예상되는 효과성 등을 평가받았다.

2. 현장 전문가 대상 다문화상담 실태 및 요구조사

가.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매뉴얼 개발 후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청소년 개입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태조사 문항은 청소년상담 경험이 있고, 청소년상담 개입 매뉴얼 개발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 1인이 초안을 구성하였고 교육학 박사 1인, 교육학 석사 1인과의 논의하여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다. 실태조사에는 상담경력과 다문화 상담 경험 유무, 상담자가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 상담 준비도,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관련 요구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자체 정보망인 CYS-Net과 꿈드림 정보망 등을 통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 상담자 중에서 설문 희망자

를 모집하였다. 응답자 중 성실히 응답에 참여한 114명의 답변을 분석하였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3>과 같다.

<표 13>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상담복지기관 실무자) (n=114)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4	21.1
	여	90	78.9
연령	20대	23	20.2
	30대	44	38.6
	40대	31	27.2
	50대	15	13.2
	60대 이상	1	0.9
근무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4	38.6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7	6.1
	전라권(광주·전북·전남)	29	25.4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9	25.4
	강원권	1	0.9
	제주권	4	3.5
상담경력	1년 미만	6	5.3
	1년 이상 ~ 3년 미만	21	18.4
	3년 이상 ~ 5년 미만	32	28.1
	5년 이상	55	48.2
직급	센터장	6	5.3
	팀장급(책임자)	19	16.7
	실무자(팀원, 부원, 동반자 등)	89	78.1

2) 조사 결과

가) 다문화 청소년 대상 상담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114명 중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

었던 상담자는 총 78명(68.4%)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상담경험이 있는 상담자의 다문화 청소년 상담 사례 수는 최소 1건부터 최대 50건이었으며, 1인당 평균 사례 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표 14> 다문화 청소년 상담 경험 유무 및 실시 사례 수 (*n*=114)

구분				빈도(건, %)
사례 경험있음	실시 사례 수(건, %)			
	3사례 미만	3사례 이상 ~10사례 미만	10사례 이상	76건(68.4%)
	32건(41.0%)	24건(30.8%)	22건(28.2%)	
없음	-			36건(31.6%)

다문화 청소년상담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상담자들은 아래의 <표 15>와 같이 그 이유를 보고하였다.

<표 15> 다문화 청소년 상담경험이 없는 이유 (*n*=36)

구분	빈도(명)	비율(%)
해당 사례가 없어서	29	80.6
해당 문제에 대한 개입 준비가 안 되어서	7	19.4

나) 상담자가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징

상담자가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이 69.2%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외국인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9.0%), 중도입국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7.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는 재학 청소년이 89.7%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 청소년이 39.7%,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에 해당하는 11-12세의 청소년이 34.6%, 고등학생 연령인 16-18세와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에 해당하는 9-10세 청소년이 10.3%로 나타났다. 19-24세의 후기 청소년도 5.1%로 확인되었다.

<표 16> 상담자가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의 배경 (*n*=78)

구분		빈도(명)	비율(%)
배경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	54	69.2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출생 청소년	1	1.3
	외국인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	7	9.0
	외국인가정의 외국출생 청소년	5	6.4
	중도입국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	6	7.7
	중도입국가정의 외국출생 청소년 (탈북 청소년 포함)	5	6.4
학령	재학 청소년	70	89.7
	학교 밖 청소년	8	10.3
연령	9~10세(초등학교 3~4학년)	8	10.3
	11~12세(초등학교 5~6학년)	27	34.6
	13~15세(중학교)	31	39.7
	16~18세(고등학생)	8	10.3
	19~24세	4	5.1

다문화 청소년의 주호소문제를 보면 대인관계(30.3%), 가족(24.8%), 학업/진로(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특수성과 관련한 주호소문제로는 부모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 언어/의사소통, 한국사회 적응 등이었다(3명, 2.1%).

<표 17> 다문화 청소년의 주호소문제(중복응답) (n=145)

구분	빈도(명)	비율(%)
대인관계	44	30.3
가족	36	24.8
학업/진로	24	16.6
일탈 및 비행	13	9.0
정신건강	11	7.6
성격	5	3.4
생활습관/외모	3	2.1
컴퓨터/정보 인터넷 사용	3	2.1
기타_다문화 청소년 특수성 관련*	3	2.1
성	2	1.4
경제적 어려움	1	0.7

*기타: 부모에 대한 인식, 언어/의사소통, 한국사회 적응

소속 기관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발굴된 경로로는 교육청 및 학교가 5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21.8%), 다문화관련 기관(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소속기관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발굴된 경로 (n=78)

구분	빈도(명)	비율(%)
스스로	4	5.1
부모	17	21.8
교육청 및 학교	39	50.0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	4	5.1
다문화관련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	10.3
행정기관 (행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1	1.3
보호관찰소, 법원, 경찰서 등	4	5.1
병원	1	1.3

소속기관을 이용한 다문화 청소년을 연계한 외부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다문화관련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였다(64.1%).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17.9%, 행정기관 6.4% 등의 순이었다.

<표 19> 다문화 청소년을 연계한 외부기관 (*n*=78)

구분	빈도(명)	비율(%)
교육청 및 학교	2	2.6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	14	17.9
다문화관련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0	64.1
행정기관 (행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5	6.4
보호관찰소, 법원, 경찰서 등	1	1.3
병원	2	2.6
없음	3	3.8
사례마다 다름	1	1.3

다) 상담자가 인식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

대부분의 상담자가 다문화 청소년 대상 상담과 비다문화 청소년 대상 상담 개입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79.5%).

<표 20> 다문화 청소년상담과 비다문화 청소년상담의 차이유무 (*n*=78)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62	79.5
없다	16	20.5

다문화 청소년 상담과 비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차이점으로는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필요(30.4%),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의 한계(23.2%), 언어/문화적 차이로 부모상담의 어려움(20.3%),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부모-자녀 간 소통/교류의 어려움(11.6%), 가정-사회 내 문화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소수자라는 인식, 주변의 인식 등이 있었다(5.8%).

<표 21> 다문화 청소년상담과 비다문화 청소년상담의 차이점(중복응답) (n=69)

구분	빈도(명)	비율(%)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필요	21	30.4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의 한계	16	23.2
언어/문화적 차이로 부모/가정 개입의 어려움	14	20.3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모-자녀간 소통/교류의 어려움	8	11.6
가정-사회 내 문화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6	8.7
기타*	4	5.8

* 기타: 소수자라는 인식, 친구들과 스스로가 다르다는 인식, 주변의 인식

다문화 청소년 상담이 어려운 이유로는 문화적 배경 이해 부족(39.7%), 다문화상담 준비 부족(21.8%), 언어적 한계(20.5%), 라포 형성의 어려움(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다문화 청소년 상담이 어려운 이유 (n=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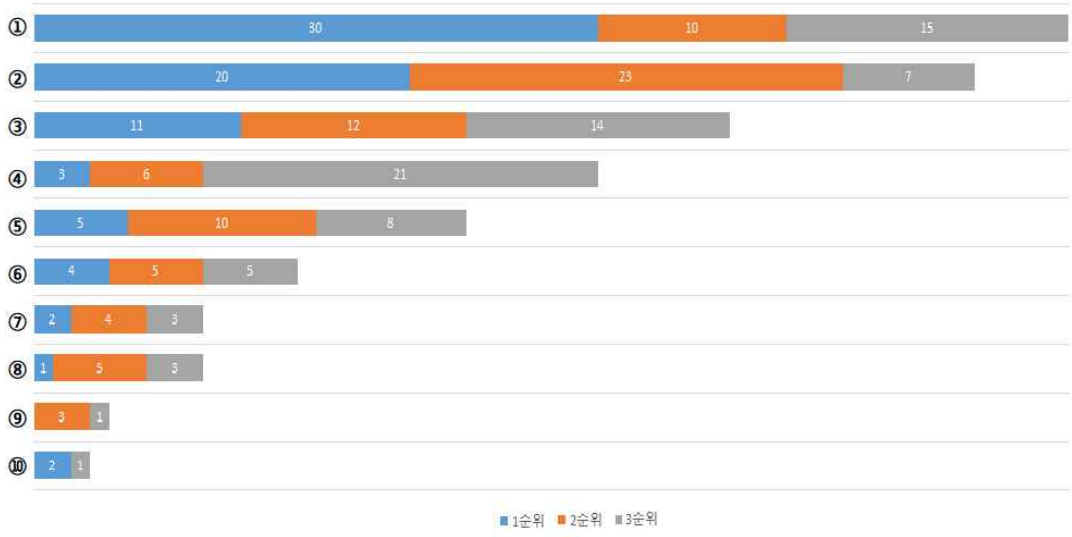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문화적 배경 이해 부족	31	39.7
다문화상담 준비 부족	17	21.8
언어적 한계	16	20.5
라포 형성의 어려움	8	10.3
없음	3	3.8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모/가족 개입의 어려움	2	2.6
자원연결	1	1.3

다문화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정서적 문제 개선(우울, 불안 등), 가족의 지지 향상, (학교 내)사회적 지지 향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문화, 학원비)의 경우 3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21건)하였지만, 1순위에서는 적은 수의 응답(3건)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4번째의 변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23> 다문화 청소년의 변화요인 (n=78)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	30	38.5	10	12.8	15	19.2
② 가족의 지지향상	20	25.6	23	29.5	7	9.0
③ (학교 내)사회적지지 향상	11	14.1	12	15.4	14	17.9
④ 경제적 지원(문화생활, 학원비 등)	3	3.8	6	7.7	21	26.9
⑤ 부모와 관련된 다문화 수용태도 향상	5	6.4	10	12.8	8	10.3
⑥ (지역사회 내) 사회적지지 향상	4	5.1	5	6.4	5	6.4
⑦ 한국문화 수용태도 향상	2	2.6	4	5.1	3	3.8
⑧ 집단 괴롭힘 감소	1	1.3	5	6.4	3	3.8
⑨ 외모 만족도 향상	-	0	3	3.8	1	1.3
⑩ 기타	2*	2.6	-	0	1**	1.3
합계	78	100	78	100	78	100

* 1순위 기타: 교육, 의사소통
** 3순위 기타: 무응답



<그림 3> 다문화 청소년의 변화요인

라)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부모개입

다문화 청소년상담 시에는 부모상담 및 부모 개입을 병행했다는 답변이 다수였다(74.4%).

<표 24>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부모 상담 병행 여부 (*n*=78)

구분	빈도(명)	비율(%)
예	58	74.4
아니오	20	25.6

부모상담 참여자는 어머니 75.9%, 아버지 19.0%, 기타 보호자 5.2% 순이었고, 참여자의 주요 문화적 배경으로는 베트남 37.9%, 중국(본토)과 중국(연변)이 각각 17.2% 순이었다. 그 외 동남아시아 6.9%,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6.9%, 필리핀 5.2%로 아시아권 부모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부모 상담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n*=58)

구분		빈도(명)	비율(%)
대상자	어머니	44	75.9
	아버지	11	19.0
	기타 보호자	3	5.2
주요 문화적 배경	베트남	22	37.9
	중국(본토)	10	17.2
	중국(연변)	10	17.2
	그 외 동남아시아	4	6.9
	러시아, 중앙아시아	4	6.9
	필리핀	3	5.2
	미주, 유럽, 대양주	2	3.4
	일본	2	3.4
	캄보디아	1	1.7

부모상담 시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적 한계(36.2%), 자녀 및 배우자와의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29.3%),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19.0%), 부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

(10.3%).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준비 부족(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부모상담 시 어려운 점 (*n*=58)

구분	빈도(명)	비율(%)
언어적 한계	21	36.2
자녀, 배우자와의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17	29.3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	11	19.0
부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	6	10.3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준비 부족	2	3.4
없음	1	1.7

마) 다문화 청소년 개입 관련 상담자 및 기관의 준비도

'다문화 청소년 개입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에 대한 문항에서는 57.9%의 상담사가 '없다' 고 응답하였다.

<표 27> 상담자의 다문화 청소년 개입 교육 경험 (*n*=144)

<table>
<tr><th colspan="5">구분</th><th>빈도(회, %)</th></tr>
<tr><td rowspan="3">있음</td><td colspan="4">교육 횟수(%)</td><td rowspan="3">48회(42.1%)</td></tr>
<tr><td>1회</td><td>2~3회</td><td>4~5회</td><td>6회 이상</td></tr>
<tr><td>15회(31.3%)</td><td>26회(54.2%)</td><td>3회(6.3%)</td><td>4회(8.3%)</td></tr>
<tr><td>없음</td><td colspan="4">-</td><td>66회(57.9%)</td></tr>
</table>

상담자가 받은 다문화 청소년 개입 교육은 다문화관련(가정, 청소년 등) 상담에 대한 교육(42.7%),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문제(18.0%),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실과 어려움(13.5%)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입국 및 거주 관련 행정적/법적 문제,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교육 등이 있었다.

<표 28> 상담자가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 개입 교육 내용(중복응답) (*n*=89)

구분	빈도(명)	비율(%)
다문화관련(가정, 청소년 등) 상담에 대한 교육	38	42.7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문제	16	18.0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실과 어려움	12	13.5
이주민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8	9.0
이주민 출신국가의 역사, 문화	6	6.7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	6	6.7
기타*	3	3.4

*입국 거주 관련 행정적/법적 문제,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교육 등

상담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다문화 청소년 개입 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물어 보았다. 다문화수용성은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상호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 설정(공존)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p.39)를 뜻한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으로 나누어지며 전체 평균은 4.02이다.

'다양성' 은 다른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으며, 다른 문화 또는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한다. 상담자가 스스로 평가한 다양성은 5점 만점에 4.07로 나타났다. '관계성' 은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향이다.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의 상담자는 관계성 영역에서 3.89점으로 나타났다. '보편성' 은 경제적 수준,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종적·종교적·지역적 차이를 다루고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4.11점으로 나타났다.

<표 29> 상담자가 인식하는 다문화 수용성 정도 (5점 리커트 척도, n=114)

구분	평균
다양성	4.07
관계성	3.89
보편성	4.11
전체	4.02

소속기관의 다문화 청소년 개입 관련 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로 만든 면접지/검사지 구비, 통역서비스 제공, 수용적 환경 구축, 상담자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실시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언어별 면접지/검사지 구비는 1.78, 통역서비스 제공은 1.77, 수용적 환경 구축은 1.96, 상담자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실시는 2.37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1.97이었다.

<표 30> 소속기관의 다문화 청소년 개입 관련 준비도 (5점 리커트 척도, n=114)

구분	평균
언어별 면접지/검사지 구비	1.78
통역 서비스 제공	1.77
수용적 환경 구축	1.96
상담자 대상 교육 실시	2.37
전체	1.97

바) 다문화 청소년 개입 시 필요한 상담자의 역량 및 매뉴얼 요구 사항

다문화 청소년 개입 시 필요한 상담 역량에 대해서는 문화 차이에 대한 지식/이해(22.3%), 문화배경에 대한 지식/이해(18.5%), 내담자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16.0%), 다문화 민감성(14.1%) 등 다문화 청소년의 배경에 대한 지식/이해 및 심리적 준비도에 대한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고, 이외에도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는 상담기법(12.9%), 언어적 능력(6.9%),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국제결혼 관련지식 등)에 대한 정보(6.3%), 유관기관 정보 및 연계 역량(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다문화 청소년 개입 시 필요한 상담자의 역량(중복응답) (*n*=319)

구분	빈도(명)	비율(%)
문화차이에 대한 지식/이해	71	22.3
문화배경에 대한 지식/이해	59	18.5
내담자에 대한 편견없는 태도	51	16.0
다문화 민감성	45	14.1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는 상담기법	41	12.9
언어적 능력	22	6.9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정보	20	6.3
유관기관 정보 및 연계 역량	10	3.1

상담자가 희망하는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내용으로는 다문화 청소년 개입 기법(32.7%),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17.3%), 다문화 청소년 특성(16.4%), 상담자의 다문화관련 역량 내용(13.2%), 다문화 청소년 연계 기관 및 자원(10.0%), 다문화 청소년 정책 및 제도(10.0%) 순이었다.

<표 32>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희망 내용(중복응답) (*n*=220)

구분	빈도(명)	비율(%)
다문화 청소년 개입 기법	72	32.7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	38	17.3
다문화 청소년 특성	36	16.4
상담자의 다문화관련 역량 내용	29	13.2
다문화 청소년 연계 기관 및 자원	23	10.5
다문화 청소년 정책 및 제도	22	10.0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상술한 내용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희망 상세 내용

구분	내용
다문화 청소년 개입 기법	다문화 청소년 특성과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기법에 대한 연수 필요
	다문화 청소년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개입 기법은 비다문화 청소년들과 같은 기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이론 및 개입 방법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개입방법과 주의사항
	세세한 준비 및 개입방법에 대한 매뉴얼 필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면 함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	매뉴얼에 환경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한 통역 및 안내 자료 준비
	다문화 청소년이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상담환경 조성
다문화 청소년 특성	부모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필요. 문화 배경에 따른 다양한 상담 접근 방법
	다문화 청소년 특성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
	다문화 청소년만의 특성 및 이해
상담자의 다문화관련 역량 내용	다문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역량 강화 지원 필요
	상담자가 다문화 관련 역량 및 감수성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지침 필요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을 이해하는 태도
다문화 청소년 연계 기관 및 자원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목록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환경과 연계사례를 통한 연계방안
	복지연계가 많이 필요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으로 다양한 연계 복지혜택 또는 기관 정보
	다문화 청소년이기에 지원 받거나 연계 가능한 기관 혹은 정보
다문화 청소년 정책 및 제도	다문화 청소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

다문화상담에 필요한 사회정의상담 역량을 살펴보면 전체 역량 평균이 4.63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들의 비판적 의식수준은 4.65점, 비판적 동기수준은 4.74점, 사회정의 옹호역량은 4.53점이었다.

<표 34> 다문화상담에 필요한 사회정의상담 역량 수준 (6점 리커트 척도, n=114)

구분	문항	점수
비판적 의식수준	1. 특정 인종 및 다문화 가정은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다.	3.96
	2. 모든 집단은 삶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	5.34
	평균	**4.65**
비판적 동기수준	3.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하다.	5.13
	4. 사회를 위해 참여하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내 책임이다.	4.34
	평균	**4.74**
사회적의 옹호역량	5. 당신은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안녕과 발달을 가로막는 환경적 장애물에 대응하도록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합니까?	4.52
	6. 당신은 다문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5.14
	7. 당신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 해결과 자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사회적, 전문적 활동에 참여합니까?	3.93
	평균	**4.53**
전체평균		**4.64**

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상담 개입에 관해 실제적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다문화권 청소년과의 상담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상담 개입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조사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이다(Morgan, 199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경험이 있으면서 다문화 청소년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생산적 토의가 가능토록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 최종 10명을 선정하였으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35>와 같다.

<표 35> FGI 참여자 일반적 특징

참여자	성별	나이	경력	소속
A	여	40대	19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B	여	50대	2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	남	40대	1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D	여	50대	20년	청소년수련관
E	여	30대	8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F	여	40대	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G	여	20대	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	여	40대	9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I	여	30대	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J	여	30대	3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가) 질문지 구성

FGI질문지 내용은 청소년상담 경험이 있고, 청소년상담 개입 매뉴얼 개발 연구경험이 있는 심리학 박사 및 교육학 박사 2인이 초안을 구성하였고, 이후 질적 연구 수행경험이 있는 연구진과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완성된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실제적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4개영역 14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FGI 질문지

영역	질문
다문화상담	다문화 청소년 상담사례 수 및 발굴경로, 연계기관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서 겪은 어려움과 효과적인 개입 방법
	다문화 청소년 부모 개입 어려움과 효과적인 개입 방법
다문화상담자 역량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필요한 상담자 역량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다문화 청소년 기관의 역할	다문화 청소년 개입을 위해 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다문화 청소년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연계 또는 협력할 기관
매뉴얼 개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상담자 및 기관 준비, 상담개입, 자원연계 등 각각의 영역에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매뉴얼의 제공 형식

나) 인터뷰 진행 및 분석방법

인터뷰는 참여자 기본정보를 토대로 유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진행시기는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12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반구조화된 형식의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여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충분히 정리해 본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FGI 진행 경험이 많은 상담심리학 박사 1인이 이끌어갔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2인이 보조로 참여하였다. 진행 순서는 인터뷰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인터뷰 내용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후 본격적으로 질문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녹음된 내용을 축어록으로 전사하였고,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 2020의 메모기능을 활용하여 1차 코드를 추출하였다. 이후 비슷한 유형의 코드를 묶는 일반화 및 보편화 과정을 거쳐 2차 코드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및 2차 분석자료를 토대로 공동연구자들이 모여 전사된 자료를 함께 읽어가며 범주화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이때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범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Morgan, 1998).

3) 인터뷰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FGI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에 대한 8개 범주와 36개의 중범주, 8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7>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FGI 분석 결과

대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1. 사례발굴 경로 및 연계기관	교육기관	교육청 학교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 관련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기관	시청, 도서관
	법 관련 기관	법원 경찰서
	개인	부모권유 스스로
2. 다문화 청소년 상담 주요문제	정신건강	ADHD 자살·자해 불안·우울 등 정서문제
	학업/진로/자립	학업 부진 진로 문제
	학교 적응	교우관계 및 따돌림 학교폭력 언어의 한계로 또래와 소통이 어려움 등교거부
	비행	절도, 손괴, 폭행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가족갈등	학대 부모-자녀 간 소통의 어려움 부부 및 고부간 갈등
	문화정체성 혼란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
3. 효과적인 상담개입	상담기법	인지행동 개입기법 정서촉진 개입기법

대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방법	비언어적 개입방법	미술치료
	긍정적인 상담 관계 형성	상담 시 내담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함 상담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 경험을 하도록 함
	적극적인 부모개입	자녀의 심리상태 및 장점 전달 정서적 지원 필요성 인식교육 자녀양육 방법 안내 및 코칭 부모의 한국어 수준 확인하여 수준에 맞게 개입 다문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기
	상담자의 개방적이고 진솔한 태도	비다문화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함 청소년·부모를 존중하는 태도 내담자의 다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
	자기이해 및 표현	다문화 가정의 불편한 점을 장점으로 인식 자기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줌
4. 상담과 병행 시 효과적인 지원방법	복지공공서비스 지원	복지지원 정보제공 지원 모국어 상담 서비스 지원
	대안활동 제안 및 시도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취미활동 발굴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운동회, 야유회 행사
	동일 문화권 모임/단체와 연결	선후배 이민자 멘토링
	생활지도	기초생활 관리
	언어지원	상담통역사 지원 상담 신청서, 감정카드 등 주요자료를 해당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
5. 상담개입 시 어려움	부모상담의 어려움	양육방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자녀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부족 언어적 한계로 소통의 어려움
	상담관계 형성이 어려움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신뢰로운 관계 형성 경험 부족
	자기개방의 어려움	다문화적 국내 거부 조건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해가 됨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 부족	다문화 언어로 제작된 상담신청서 및 동의서 등 서류가 없음 다문화 언어로 된 심리평가 도구가 없음
6. 다문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담자의 수용력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

대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상담자 역량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자각함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관심 있는 태도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상담자 전문성	매체상담 역량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상담관계 형성능력
7. 기관의 다문화 상담 준비	다문화 상담자 역량관리 및 지원	국가별 문화 특성 관련 정보 다문화 상담 매뉴얼 다문화 상담자 교육 다문화 사례 슈퍼비전
	수용적인 다문화 상담환경 조성	다문화 언어의 상담안내자료 비치 다양한 문화 특성 관련 장식 및 자료 보유 유관기관과의 자원연계 체계 구축
8. 매뉴얼 포함 요구사항	매뉴얼 구성 형식	‘상담자 및 기관 준비편’,’상담개입편’,’자원활용편’으로 구성 연령에 따른 매뉴얼 제시: 초등용, 중고등용 개인상담/집단상담 활용 매뉴얼
	상담 시 활용 도구 제시	동영상 및 게임 소개 심리검사 활용 방법 기관 내 다문화 상담구축 체크리스트 제시
	상담개입 내용	내담자 자립능력 향상 방법 다문화 관련 정보 부모상담 및 개입방법

가) 사례발굴 경로 및 연계기관

사례발굴 경로 및 연계기관에 관한 주제에는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 관련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기관(시청, 도서관), 법 관련기관(법원, 경찰서), 개인(부모권유, 스스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① 교육기관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사례발굴경로 중 교육기관은 교육청과 학교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검사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상담기관에 연계되는 경우가 있었다.

"발굴경로는 학교입니다. 학교교육복지사 그리고 위클래스 교사 그리고 정서행동심층평가, 교사들을 통해 많이 발굴되고 (중략)."
(학교/참여자 E)

②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사례발굴경로 중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참여자들은 지역 내 청소년 기관에서 다문화 청소년 상담사례를 의뢰받거나 필요한 경우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기관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그 곳에서 다문화 아이가 한 명 있어서 연계되어 상담을 받고 있어요. (중략)"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참여자 D)

③ 다문화 관련 기관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사례발굴경로 중 다문화 관련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상담을 의뢰받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었다.

"발굴 경로는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아이들이 주요서비스를 받고 있는 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취약 전 연령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지원하는데, 부모님들이 자조모임 집단에 참여하시다가 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의뢰가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참여자 C)

④ 행정기관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사례발굴경로 중 행정기관에는 시청과 도서관이 있다. 다문화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부서가 있어 요청할 경우,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저희는 사실 한 동네가 거의 외국 분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략) 시청의 사례관리사가 사례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참여자 F)

⑤ 법 관련 기관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사례발굴경로 중 법 관련 기관의 하위요인은 법원과 경찰서가 있는데, 특정지역의 경우 비행에 연루되어 법원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많았다.

"법원 사례 특성상 아이들은 비자발적이지만 상담을 받아야만하기 때문에 상담의 기회가 주어지는 케이스에요. 이러한 특징을 봤을 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략) 아이들에게 센터 홍보를 해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정도의 나이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참여자 A)

⑥ 개인

개인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로, 부모의 권유와 청소년 스스로 상담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다문화 청소년 사례가 상담복지센터로 의뢰되거나 연계되는 경로는 다양하였으며, 주로 기관을 통해 사례가 발굴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발적으로 오는 아이들 중에는 적응문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참여자 A)

나) 다문화 청소년 상담 주요문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주요문제에 관한 주제에는 정신건강(ADHD, 자살·자해, 불안·우울 등 정서문제), 학교 적응(교우관계 및 따돌림, 학교폭력, 언어의 한계로 또래와 소통이 어려움, 등교거부), 비행(절도, 손귀, 폭행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가족갈등(학대, 부모-자녀 간 소통의 어려움, 부부 및 고부간 갈등), 문화정체성 혼란(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① 정신건강

현장전문가들은 ADHD, 자살·자해, 불안·우울 등 정서문제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을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였다.

"우울이나 불안 문제도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울 불안 문제로 찾아왔는데 탐

색해보니 결혼이주배경의 자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안 우울 등 정서문제/참여자 C)

② 학업/진로/자립

현장전문가들은 학업 부진과 진로 문제를 포함한 학업/진로/자립을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맞는 학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능력의 편차가 더 커지고 진로와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학원을 보내달라, 특별지원을 해달라,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달라 등의 욕구들로 인해 찾아옵니다. 고등학교나 그 이후에는 심리적 지원들보다는 진로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기 별로 주호소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진로문제/참여자 C)

③ 학교 적응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우관계 및 따돌림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언어의 한계로 또래와 소통을 힘들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등교거부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학교적응' 은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주요문제 범주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중범주이며, '교우관계 및 따돌림' 은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하위범주이다.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 사례도 있었다.

"친구들과 학교 내에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말을 잘 안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거나(중략)."
(언어의 한계로 또래와 소통이 어려움/참여자 D)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데 한국말이 익숙해지지 않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교우관계 및 따돌림/참여자 B)

④ 비행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요문제로 비행이 있다. 참여자들은 보호관찰소, 법원, 경찰서 등을 통해 연계되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비행이 주요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들은 집단 유대관계를 통해 절도, 손괴, 폭행과 같은 비행을 일

으키고 비행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절도, 손괴, 폭행과 같은 비행문제도 있습니다. 비행문제로 의뢰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끼리 집단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비행문화에 젖어드는 이주배경 아이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도, 손괴, 폭행 등/참여자 A)

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청소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과 게임만 하며 보내거나, 인터넷스마트폰 전수조사 결과 중독으로 판정받아 연계되는 경우가 있었다.

"발달 중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많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스마트폰하고 게임만 하더라 해서 부모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참여자 C)

⑥ 가족갈등

다문화 청소년들은 가족 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고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주요한 문제라고 현장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가족갈등에는 학대, 부모-자녀갈등, 부부 및 고부간 갈등이 있으며, 부모-자녀 간 애착형성이 되지 못했거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있었다.

"엄마한테 얘기해도 엄마는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전제가 있더라구요. 또 말은 하지만 문자나 글로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과 무기력함. 이런 경우에는 학교 교사와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아빠와도 그런 것들을 터놓고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자녀 간 소통의 어려움/참여자 D)

"제가 상담했던 분들은 외국인 엄마 밑에 있어서 더 소통이 안되는 이혼가정이 전부였어요. 엄마가 나보다 언어가 더 안되니까 엄마랑 차단 (중략)."
(부모-자녀 간 소통의 어려움/참여자 F)

⑦ 문화 정체성 혼란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문화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다문화상담의 주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에요? 나는 한국에서 소수자에요' 라고 정체성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중략)."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참여자 E)

다) 효과적인 상담 개입방법

효과적인 상담 개입방법에 관한 주제에는 상담기법(인지행동 개입기법), 비언어적 개입방법(미술치료), 긍정적인 상담관계 형성(상담 시 내담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함, 상담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 경험을 하도록 함), 적극적인 부모개입(자녀의 심리상태 및 장점 전달, 정서적 지원 필요성 인식교육, 자녀양육 방법 안내 및 코칭, 부모의 한국어 수준 확인하여 수준에 맞게 개입, 다문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기), 상담자의 개방적이고 진솔한 태도(비 다문화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함, 청소년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 내담자의 다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 자기이해 및 표현(다문화 가정의 불편한 점을 장점으로 인식,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줌)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① 상담기법

현장전문가들은 인지행동 개입기법과 정서촉진 개입기법 등의 상담기법을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인지행동 개입기법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여 도움이 되며, 내담자가 자기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주는 정서촉진 개입기법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비행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은 자기의 강점들을 모르는데 상담자가 강점화 시켜서 돌려주는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실제로 받아보니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인지행동 개입기법/참여자 A)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강화하고,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서촉진 상담기법/참여자 B)

② 비언어적 개입방법

현장전문가들은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비언어적 개입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미술치료를 활용하거나 매체를 이용한 상담개입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매체를 활용한 상담이 좋았어요. 그림진단검사 뿐만 아니라 가벼운 미술치료를 응용한다던지, 언어가 약점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미술치료/참여자 E)

"미술치료 개념 아이들의 가족을 그리게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탐색해보면서 그냥 옆에서 있어주었어요."
(미술치료/참여자 F)

③ 긍정적인 상담 관계 형성

현장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위해서 긍정적인 상담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상담관계는 상담 시 내담자가 주도할 기회를 주는 것, 상담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 경험을 하는 것 등으로 촉진될 수 있다.

"상담일정을 자기가 정하게 해준다던가, 앉을 자리를 결정하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잡게끔 해주는 것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상담시 내담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함/참여자 B)

"선생님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 보였어요. 선생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 경험을 하도록 함/참여자 A)

④ 적극적인 부모개입

현장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부모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부모개입을 위해서는 자녀의 심리상태 및 장점 전달, 정서적 지원 필요성을 인식교육, 자녀양육 방법 안내 및 코칭, 부모의 한국

어 수준 확인하여 수준에 맞게 개입, 다문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기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아이의 장점, 잘할 수 있는 부분, 개발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좋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담자를 칭찬하면서 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중략)."
(자녀의 심리상태 및 장점 전달/참여자 F)

"어머님들이 아이들 양육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세요. 먹고 사는 것 잘해주고 학교가 다 책임져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더 정서적 지원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정서적 지원 필요성 인식교육/참여자 C)

"딱 우리나라 70년대 부모님 수준인 것 같아요. 관계형성도 잘 못하고 원가족에서 받은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A~Z까지 코칭을 해줘야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녀양육 방법 안내 및 코칭/참여자 A)

⑤ 상담자의 개방적이고 진솔한 태도

현장전문가들은 상담자의 개방적이고 진솔한 태도가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다문화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하고, 청소년과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며, 내담자의 다문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담자를 통해 내담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냥 별 다르지 않게 다문화 청소년이든 비다문화 청소년이든 같다고 생각을 하고."
(비다문화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함/참여자 F)

"부모님들이 상담자가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님과 아이컨택 잘하면서 따뜻하게 쉬운 단어로 쉽게 존중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청소년·부모를 존중하는 태도/참여자 B)

"다문화 아이들이 오게 되면 배경이 되는 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다 훑는 편이에요. 제 나름 의도적으로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는 편이죠."
(내담자의 다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참여자 B)

⑥ 자기이해 및 표현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서 다문화 가정의 불편한 점을 장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자기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과정을 통해 자기이해 및 표현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엄마 나라 베트남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난 두 가지 다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가진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강점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다문화 가정의 불편한 점을 장점으로 인식/참여자 G)

"사실 자기표현이나 이런 게 잘 해본 경험조차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감정 반영을 해준다든가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줌/참여자 H)

라) 상담과 병행 시 효과적인 지원방법

상담과 병행 시 효과적인 지원방법에 관한 주제에는 복지공공서비스 지원(복지지원 정보제공 지원, 모국어 상담 서비스 지원), 대안활동 제안 및 시도(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취미활동 발굴),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운동회, 야유회 행사), 동일 문화권/모임/단체와 연결(선후배 이민자 멘토링), 생활지도(기초생활 관리), 언어 지원(상담통역사 지원, 상담신청서 감정카드 등 주요자료를 해당언어로 작성하여 제공)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① 복지공공서비스 지원

현장전문가들은 복지지원 정보제공과 모국어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의 복지공공서비스 지원이 상담과 병행 될 때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복지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상담개입으로 연결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부모님들에게 득이 되는 게 있어야하겠죠. 그래서 복지지원과 결합되는 형태를 좋아하시더라구요.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 관련한 것들, 정보 리스트들, 정보자원집 정리한 것들을 안내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공공서비스에 접촉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구요."

(복지지원 정보제공 지원/참여자 C)

"언어도 안 되시거든요. 그럴 때 좀 걱정을 많이 감소시켜 드리고 차근차근 제도를 소개해 드릴 때 부모 개입이 좀 더 잘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모국어 상담 서비스 지원/참여자 E)

② 대안활동 제안 및 시도

현장전문가들은 사회성이 부족하여 위축되어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슷한 부분의 사람들끼리 캠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요리를 한다거나 취미 활동처럼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안활동 제안 및 시도/참여자 E)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 너무 많아서 대안활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운동 연계도 하려고 했었어요."
(대안활동 제안 및 시도/참여자 D)

③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장전문가들은 가족 간 소통이 부족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운동회, 야유회 행사 등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운동이나 야외활동 이런 것들.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하면 좋겠더라구요. 가족끼리 하는 활동이 많이 없더라구요."
(운동회, 야유회 행사/참여자 D)

④ 동일 문화권 모임·단체와 연결

현장전문가들은 선후배 다문화 가족에게 이민자 멘토링과 같은 동일 문화권의 모임이나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동일 문화권 모임 등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선후배 멘토링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구요. 외부에 이미 잘 정착되어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

들 보면서 참여가 많고(중략) 자연스럽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일 문화권 모임・단체와 연결/참여자 E)

⑤ 생활지도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상담과 병행한 기초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를 통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 청소년에게 상담사가 직접 기초적인 생활 관리를 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책가방 싸주는 거부터...(중략) 아이가 편안해져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생활지도/참여자 F)

⑥ 언어 지원

현장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다문화상담을 위해서 언어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역량 있는 상담통역사를 배치하고 활용하거나 상담신청서, 감정카드 등 주요자료를 해당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 통역 지원사를 또 지원하고 있어요. (중략) 이중 언어 상담사도 있지만 좀 보편적인 언어들 몇 개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내담자가 자기 모국어로 편하게 속마음을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사를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상담통역사 지원/참여자 H)

"저희는 일단은 상담동의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검사들은 번역이 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필요시에 사용하는 검사나 도구 같은 게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번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신청서, 감정카드 등 주요자료를 해당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참여자 H)

마) 상담개입 시 어려움

상담개입 시 어려움에 관한 주제에는 부모상담의 어려움(양육방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자녀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부족, 언어의 한계로 소통이 잘 안됨), 상담관계 형성이 어려움(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신뢰로운 관계 형성 경험 부족), 자기개방의 어려움(다문화적 국내 거주 조건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해가 됨),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 부족(다문화 언어로 제작된 상담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서류가 없음,

다문화 언어로 된 심리평가 도구가 없음)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① 부모상담의 어려움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청소년 부모 상담에서 양육방법의 문화적 차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등 관심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언어가 달라 상담 개입 시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상담을 받으면서 직업 체험까지 연결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러시아권 어머님은 문화권 특성상 '자립해야한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서라' 하는 강한 양육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은둔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어요."
(양육방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참여자 A)

② 상담관계 형성이 어려움

참여자들은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신뢰로운 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하여 상담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라포형성이 참 어려운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다문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사하고 이름 불리는 것도 있고 하는데, 상담을 받는 것도 '내가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상담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참여자 B)

③ 자기개방의 어려움

다문화 청소년상담을 하는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청소년이나 그 부모 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다문화적인 다양한 조건(예: 체류조건 등)들로 인해 상담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간에 입국한 아이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갖는 게,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지금 환경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문제들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따로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중략)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반응들을 고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거죠.

그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심해져요. 가려서 얘기하거나, 진정성을 더 할 수 있는데 못한다던지, 내면에 있는 얘기를 확 못 펼치는 게 있죠."
(다문화적 국내 거주 조건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해가 됨/참여자 A)

④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 부족

다문화 청소년상담 현장전문가들은 상담초기 단계에서 부터 필요한 각종 자료나 양식들이 없어서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예를 들면,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상담 신청서나 동의서, 심리평가 도구가 없어서 직접 번역기를 돌려 사용하기도 하고, 표준화된 심리평가보다는 투사검사 중심으로 심리평가를 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했다.

"상담 신청서 같은 것만 해도 나라 언어로 된 신청서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중국어도 일본어도 베트남 아무것도 없고 다 한국 말이잖아요. 그분들은 그거를 작성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준비 해갈 때 어머니께서 좀 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상담에도 좀 더 협조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 언어로 제작된 상담신청 및 동의서 등 서류가 없음/참여자 G)

"척도나 설문지들을 번역을 해 주시기는 해요. (중략) 이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거를 읽어보시면서도 자기 나라 말인데도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시더라고요."
(다양한 언어로 된 심리평가 도구가 없음/참여자 J)

바) 다문화 상담자 역량

다문화 상담자 역량에 관한 주제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담자의 수용력(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자각함,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관심 있는 태도,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상담 개입의 전문성(매체상담 역량, 다문화 청소년 및 상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상담관계 형성능력)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담자의 수용력

다문화 청소년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해야 하며, 상담자 스스로 다문화적 편견이 있을 경우 이를 자각하고 다양한 문

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관심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및 부모와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다문화적 감수성이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이든 비다문화 청소년이든 같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거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참여자 F)

② 다문화 상담 개입의 전문성

연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청소년상담 개입에서 필요한 전문성으로 매체상담과 관련된 역량, 다문화 청소년과 상담의 특성을 이해하는 역량,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다문화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매체를 활용한 상담이 좋았어요. 그림 진단검사 뿐만 아니라 가벼운 미술치료를 응용한다던지, 언어가 약점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매체상담 역량/참여자 E)

사) 기관의 다문화 상담 준비

기관의 다문화 상담 준비 주제에서는 '다문화 상담자 역량 관리 및 지원(국가별 문화 특성 관련 정보, 다문화 상담 매뉴얼, 다문화 상담자 교육, 다문화 사례 슈퍼비전)', '수용적인 다문화 상담 환경 조성(다문화 언어의 상담 안내자료 비치, 다양한 문화 특성 관련 장식 및 자료 보유, 유관기관과의 자원연계 체계 구축)' 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① 다문화 상담자 역량 관리 및 지원

참여자들은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는 기관차원에서 다문화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다문화 상담 매뉴얼의 비치, 다문화 상담자에 관한 교육, 다문화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다문화 대한 현황 같은 것들이 자료가 좀 기관별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별 문화 특성 관련 정보/참여자 D)

② 수용적인 다문화 상담환경 조성

다문화 청소년상담을 위해서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상담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다문화 언어로 된 상담안내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다양한 문화 특성과 관련된 장식이나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자원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담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가면 딱 로비에 보면 여러 언어로 안내문이 있거든요. (중략) 영어가 아닌 또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지나 기본 왜 우리 안내문에 들어가는 센터 이용 절차 이런 것만 한 몇 대 국어로 조금 번역해서 저희가 계속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PDF나 그런 걸 들고 있으면 계속 출력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언어의 상담 안내자료 비치/참여자 E)

아) 매뉴얼 포함 요구사항

매뉴얼 포함 요구사항 주제에서는 '매뉴얼 구성 형식(상담자 및 기관 준비 편-상담개입 편-자원활용 편으로 구성, 연령에 따른 매뉴얼 제시, 개인상담/집단상담 활용 매뉴얼)', '상담시 활용 도구 제시(동영상 및 게임 소개, 심리검사 활용 방법, 기관 내 다문화 상담구축 체크리스트 제시)', '상담개입 내용(내담자 자립능력 향상 방법, 다문화 관련 정보, 부모상담 및 개입방법)'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① 매뉴얼 구성 형식

참여자들은 매뉴얼 구성 시 상담자 및 기관 준비 편, 상담개입 편, 자원활용 편으로 구성되기를 희망했으며, 초등 및 중고등 연령에 따른 매뉴얼이 제시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상담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모두에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런 매뉴얼 부분들은 좋은 것 같구요. 말 그대로 이제 한국말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중고등학교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담자 및 기관 준비 편, 상담개입 편, 자원활용 편으로 구성/참여자 D)

② 상담시 활용 도구 제시

연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상담 개입 매뉴얼에 동영상 및 게임 소개, 심리

검사 활용 방법, 기관내 다문화 상담구축이 되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동영상을 보거나 광고 아니면 게임 같은 형식으로 제공." (동영상 및 게임 소개/참여자 F)

"각 센터별로 다문화 상담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오든 안 오든 지역대상 스크리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어에 대해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까? 심리검사는 괜찮은가? 하는 자체적인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관 내 다문화 상담구축 체크리스트 제시/참여자 C)

③ 상담개입 내용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상담개입 매뉴얼 중 상담개입에 관한 부분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 방법이나, 다문화에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 부모상담 및 개입방법 등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스스로 자립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셀프케어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담자 자립능력 향상 방법/참여자 E)

"자원 연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자원이 있다고 하는 거를 조금 알려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기관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기간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세세하게 알려주면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 같아요."
(다문화 관련 정보/참여자 J)

다. 실태조사 및 FGI 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고 통합개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획단계에서 실시한 다문화 상담 실태 및 요구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FGI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실태조사에는 114명의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실무자가 참여하였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태조사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 중 68.4%가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었으며, 상담사례는 1건에서 50건으로 그 편차가 컸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상담자가 경험한 1)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 특성, 2) 다문화상담 경험, 3)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준비도와 상담기관의 다문화상담 준비도에 대한 평가, 4) 개입 매뉴얼의 필요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가 만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으로는 내담자의 69.2%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청소년이었으며, 74.3%의 내담자는 11~15세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는 대인관계(30.3%), 가족(24.8%), 학업/진로(16.6%) 등의 순이었다.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의 50%는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의뢰되었으며, 부모(21.8%)가 의뢰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외부와 연계하는 경우의 64.1%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다문화관련기관과의 연계였으며, 아동 및 청소년 유관기관은 17.9%이었고, 교육청 및 학교는 2.6%에 그쳤다.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 79.5%는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는 것은 다른 대상을 상담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는 것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30.4%),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고(23.2%), 언어/문화적 차이로 부모 상담이 어려우며(20.3%),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부모-자녀 간 소통/교류의 어려움이 있고(11.6%), 가정-사회 내 문화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8.7%)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은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할 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39.7%), 다문화 상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21.8%), 언어적 한계가 있고(20.5%), 라포 형성이 어렵다(10.3%)고 호소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가족과 학교 내의 사회의 지지가 향상과 경제적 지원 역시 변화의 기폭제가 된다고 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상담 시에는 보호자 상담 및 개입을 병행했다는 답변이 다수였는데(74.4%), 보호자 상담에 참여한 대상자는 어머니가 75.9%로 다수였고, 대부분은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권의 배경을 갖고 있었다. 보호자 상담을 할 때, 언어적 한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되었고(36.2%), 자녀, 배우자와의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29.3%),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19.0%), 상담자의 보호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10.3%)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이 다문화상담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한 내용으로 청소년복지센터 실무자들의 57.9%는 다문화 청소년 개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개입 교육을 받은 경우는 다문화 관련

(가정, 청소년 등) 상담에 대한 교육(42.7%),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문제(18.0%),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실과 어려움(13.5%) 등의 내용을 교육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은 자신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을 대체로 높게 평가했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지녔는가를 묻는 다양성, 이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를 묻는 관계성,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 대해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보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의 사회정의상담 역량을 검토하기 위해 비판적 의식과 사회정의옹호 역량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은 모든 집단이 삶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것에는 거의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한 반면, 특정 인종 및 다문화 가정은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다는 것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회 인식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여 변화의 필요성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 참여 간의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평가에서 실무자들은 센터의 다문화 상담 준비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소속기관이 다양한 언어로 만든 면접지/검사지 구비, 통역서비스 제공, 수용적 환경 구축, 상담자 대상 다문화 관련 교육 실시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준비가 미비하다고 보았다.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은 다문화 청소년 개입에는 문화차이에 대한 지식/이해(22.3%), 문화배경에 대한 지식/이해(18.5%), 내담자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16.0%), 다문화 민감성(14.1%)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는 상담기법(12.9%), 언어적 능력(6.9%),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국제결혼 관련지식 등)에 대한 정보(6.3%), 유관기관 정보 및 연계 역량(3.1%)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이 개발된다면 다문화 청소년 개입 기법(32.7%),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17.3%), 다문화 청소년 특성(16.4%), 상담자의 다문화관련 역량 내용(13.2%), 다문화 청소년 연계 기관 및 자원(10.0%), 다문화 청소년 정책 및 제도(10.0%)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상담자들의 다문화상담 경험과 횟수는 다양하나 대체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그렇지 않은 상담과 구별되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상담에서 호소하는 주 호소문제와 부모상담의 중요성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내담자의 문화

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언어의 한계 등으로 효과적인 상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담자들은 다문화 청소년 개입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의 준비는 아직 미비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복지기관 실무자들이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개입에 필요한 효과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 개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위해 심층적인 FGI를 진행하였다. FGI 참여자는 다문화 청소년상담 경험이 있는 다문화와 관련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되었고, 질문은 다문화상담, 다문화상담자 역량, 다문화 청소년 기관의 역할, 매뉴얼 개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FGI 결과 총 8개의 범주와 33개의 중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앞서 논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실태조사에서 많은 실무자들이 스스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의 준비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다문화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역량을 갖추고 기관에서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배경, 한국어 능력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보호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호자와의 문화수용의 차이, 보호자의 국내거주 지위 등과 같은 가족요인을 이해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상담자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지 성찰하고 이러한 잘못된 편견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신이 특정 문화적 배경이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은 없는지 성찰하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매뉴얼의 준비단계에서는 다문화 상담의 이해와 더불어 상담자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기점검 사항과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환경 조성에 대해

구체화 하였다.

둘째,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와 FGI에서 상담자들은 다문화 청소년과 신뢰로운 상담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상담자들은 다문화 청소년과의 상담에서 초기의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과 시간이 비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할 때와 비교하여 몇 배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왜냐하면 다문화 청소년 중 많은 경우, 상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들의 국내 거주 지위에 따라 상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적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자를 신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상담자는 상담초기에 상담 과정을 안내하고, 내담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진솔하게 다가가는 것과 같이 신뢰로운 상담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서 보호자 상담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FGI 결과 상담자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보호자를 상담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 언어의 한계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다문화 청소년의 보호자 상담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담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양육자의 역할이나 양육방법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담자는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서 정신건강과 정서적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녀양육에 대해 교육하는 등 효과적인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 상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매뉴얼의 개입단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개입뿐만 아니라 보호자 상담과 교육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해 구체화 하였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은 심리상담을 포함한 통합적 개입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뿐 아니라 부모개입, 필요한 지원 서비스 안내, 다양한 대안 활동제안, 지지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과 보호자 상담에서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뿐 아니라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과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유관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대안활동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 연계 기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자원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을 위해서는 기존의 심리상담의 틀과 다른

새로운 상담모형과 상담자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 이슈와 맞물려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다문화 배경으로 인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기이해와 표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다문화 배경의 의미와 특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중문화수용성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매뉴얼의 개입단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개입 시 이중문화 수용성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해 구체화 하였다.

여섯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서 주요 대상으로는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와 FGI를 통해 다문화 상담의 대상 중 대다수가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나 국내 지위는 다양하지만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또한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은 상담자와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적어서 언어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정하되, 북한을 포함한 국외 출생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소년이 적합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및 부모 대상 개입 및 연계에 관한 문헌고찰,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의 실태조사 및 현장 전문가 FGI를 통한 요구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매뉴얼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적인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3.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

가. 매뉴얼 구성 원리

본 매뉴얼은 청소년 상담자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를 넓히고, 그들이 지닌 심리·정서 및 적응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및 효과적인 상담개입뿐만 아니라 청소년안전망을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계개입 방안이 중요하다. 이에 본 매뉴얼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특성 및 개입에 관한 문헌연구와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와 FGI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1) 본 매뉴얼의 중심이 되는 사용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다.

최근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증가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통합적인 개입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의 50%는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21.8%는 다문화 청소년의 보호자에 의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의뢰되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다문화 관련기관으로 64.1%의 내담자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위해 교육청, 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의뢰하고 있으며, 그들의 심리지원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청소년 기관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가 다문화 청소년의 통합적 개입을 돕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되는 경우에 개입방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문화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연계할 때의 개입 방안에 대해 구분하였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 연계기관의 정보 및 자원 연계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한다.

2)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 개입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을 구체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자가 상담 역량이외에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인식하고 점검하는 다문화 상담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청소년상담자는 비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는 것과 달리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담자의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을 위해 필요한 상담환경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수용적인 상담실을 구축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내담자를 위한 상담서식 및 안내자료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매뉴얼에는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개입하기 전에 필요한 상담자의 준비사항과 더불어 상담환경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한다.

3) 다문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상담 개입하는 데 필요한 상담과정을 포함한다.

청소년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과의 상담에서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와 FGI에서 실제 다문화 청소년과 신뢰로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왜냐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상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매뉴얼에는 상담자가 상담초기 내담자에게 상담과정을 안내하고 내담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사례개념화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에 혼란을 느끼며,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담자 자신의 다문화 배경의 의미와 특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매뉴얼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증진하고 및 이중문화 수용성을 높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포함한다.

4) 다문화 청소년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필요한 보호자 교육과 상담을 제시한다.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한 현장전문가들의 실태조사와 FGI에서 다문화 청소년 상담개입 시 어려움 중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양육방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자녀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부족, 언어적 한계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인 자녀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매뉴얼에는 청소년상담자가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를 다루고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부모 상담을 위한 방안과 사례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나. 매뉴얼 내용 구성

본 연구에서의 구성 원리에 기초한 구성요인은 첫째, 상담준비 단계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 환경 조성, 둘째, 상담개입 단계로 다문화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통합적 상담 개입, 셋째, 연계개입 단계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지원이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구성

구성요인	세부 내용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환경 기반 조성	•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정책 이해 • 다문화 청소년 상담 이해 •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자기점검 •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
다문화 청소년 및 보호자 통합적 상담개입	• 다문화 청소년 개입의 시작 •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 개입 • 다문화 청소년 개입의 실제 • 다문화 청소년 통합적 사례개입
지역사회 유관기관 다문화 청소년 연계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연계 개입방법 • 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 및 서비스 • 다문화 청소년 관계 법령

첫 번째 구성요인은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상담자와 상담 기관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정책, 다문화 청소년 상담 개관,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자기점검,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가 내담자로 온 다문화 청소년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기관이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요소를 구체화 하였다.

두 번째 구성요인은 다문화 청소년과 보호자 상담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상담자가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개입뿐만 아니라 이들의 보호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담과 다양한 대안활동 등을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에 청소년상담 현장에 특성화된 상담 개입 방안을 담았다.

세 번째 구성요인은 다문화 청소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로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 발굴경로에 따른 연계방법,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 지원 기관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청소년 상담자가 연계개입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상담자가 상담과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 연계 기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여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연계서비스를 통한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다. 매뉴얼 초안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를 넓히고, 그들이 지닌 심리·정서 및 적응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을 위한 환경조성과 청소년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및 효과적인 상담개입 방법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교육 및 상담개입과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계가 중요하다.

본 매뉴얼은 크게 상담준비, 상담개입, 연계개입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담준비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 관련 정책, 상담자 준비사항, 상담환경 구축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상담개입에는 다문화 청소년과 상담자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맺고 상담구조화 하여 효과적으로 개입을 위한 방안,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개입방안,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연계개입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굴경로에 따른 연계개입 방안,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 및 지원 기관 정보,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9>와 같다.

<표 39>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초안 세부 내용

단계	목표	주요 내용	세부내용
상담준비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환경 기반조성	· 다문화 청소년 특성 및 정책의 이해	- 다문화 청소년 개념, 특성, 정책
		·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이해	- 다문화 청소년 상담 개관 - 사회정의 상담의 이해
		·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준비	- 상담자의 자기점검 평가 -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이해
		·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	- 다문화 청소년 상담 지원환경 - 상담자지원 환경구축
상담개입	다문화 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개입	· 다문화 청소년 개입의 시작	- 다문화 청소년 상담 안내 - 다문화 청소년 관계형성 - 적절한 상담계획 및 사례개념화
		·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 개입	- 다문화 청소년 부모교육 - 다문화 청소년 부모상담
		· 다문화 청소년 개입의 실제	- 자존감 및 자기표현 증진 방안 - 이중문화 수용태도 향상 방안 - 진로발달 및 미래계획 증진방안

단계	목표	주요 내용	세부내용
			- 다문화 청소년 통합적 사례관리
연계개입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 다문화 청소년 연계 개입방법	-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 발굴 경로에 따른 연계 방안
		· 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 및 서비스	-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 지원 기관 및 제공 서비스
		·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령	- 다문화 청소년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보제공

Ⅳ. 연구결과

1. 전문가 평가

가. 평가자

본 매뉴얼은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실무자들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적이며 타당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초안의 현장 타당성을 검토 받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3명과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 2명, 상담 및 심리 전공의 학계 전문가 2명, 총 7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내용은 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과 세부 항목별로 내용의 타당성, 충실성 활용성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 문항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는 이호준(2006)이 개발한 참가자 관점 평가 도구에서 효과성 항목의 문항을 본 프로그램평가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은 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과 단계별 내용의 적절성, 현장 활용 적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매뉴얼이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전혀 아니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밖에도 매뉴얼의 단계별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주관식 항목을 추가하였다. 본 매뉴얼의 평가문항의 세부내용은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 단계별 구성의 적절성, 현장 활용에 적합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피드백과 수정보안사항을 평가자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결과

전문가 7인의 매뉴얼 평가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71로 나타났다.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은 4.43에서 4.86으로 나왔고 현장 활용의 적합성은 4.43으로 확인되었다. 상세 점수는 <표 40>에 제시하였다.

<표 40>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평가결과

내용		평가점수(5점 만점)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		4.71
단계별 내용의 적절성	상담준비	4.86
	상담개입	4.86
	연계개입	4.43
현장 활용의 적합성		4.43
전체 평균		4.66

매뉴얼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주관식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은 본 매뉴얼의 장점으로 ㅇ 전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준비에 앞서 대상자 이해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가치·태도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좋았음, ㅇ 실제적으로 상담자가 다문화상담을 진행하는 개입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음, ㅇ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개입을 부모교육과 상담으로 구별하여 설명해주고, 예시와 TIP을 함께 제시해주어 이해를 높여주는 부분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좋았음, ㅇ다문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진행되는 주요 사업들이 안내되어 있어 좋았음, ㅇ다문화 청소년 상담자가 자신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목록을 추가한 점이 유용함, ㅇ현장의 예시를 포함하여 이해에 도움이 됨, ㅇ다문화상담에 익숙하지 않은 상담자들이 자기점검을 통해 문화감수성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ㅇ전문가의 경험을 대화체로 담아내어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이 좋았음, ㅇ부모상담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좋았음, ㅇ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과 관련 법령 내용은 외부자원 연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등을 기술하였다.

반면 ㅇ다문화 청소년 통합적 사례개입 모형 제시는 개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 좋았으나 모형 구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쉬움, 상담자가 다문화상담 전체 프로세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상담의 흐름도, 체계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전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유용한 개입과 연계기관들이 종합적이고 세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좋았음,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 용어가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었다는 느낌이 있음, ㅇ상담준비 파트에서 상담자가 상담 전 살펴볼 체크 항목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많아서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음 등이 다소 아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단계별로는 '상담준비'에 있어서 ㅇ 사회정의상담의 옹호자 및 조력자로서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사례 제시, ㅇ '상담자 다문화 상담 역량 점검'에 따른 조치도 함께 제시, ㅇ 상담자의 자기점검 파트를 실시해야 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내, ㅇ 상담환경조성의 주체로서 기관 차원에서 다문화상담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개인상담자를 지원하는 세팅을 명확히 기술, ㅇ 내담자와의 문화 차이를 다룰 수 있는 질문의 예시 추가, ㅇ 상담자 다문화상담 역량 점검 척도,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자 역할 관련 역량 점검 척도 해석 및 활용 관련 내용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담개입'에서는 ㅇ '다문화 청소년 체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추가, ㅇ 사회정의상담 차원에서 상담자의 구체적인 개입활동 내용 제시, ㅇ이주 경험으로 초래된 어려움을 타당화하는 작업이 필요, ㅇ 보호자 개입에 1)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 시 주의점, 2) 위기(긴급) 상황 시 대처 가능한 연계기관정보 등을 추가, ㅇ '국가별 어머니의 자녀 인식'에 러시아 출신 부모의 특징 추가 등의 의견이 있었다.

'연계개입'에서는 ㅇ'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세부 사업 내용 추가, ㅇ연계개입이 지역 내에서 협력하여 공동개입하는 과정임을 강조, ㅇ 다문화 통역 상담이 가능한 어플 정보 제공 필요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문맥적인 오류나 오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 매뉴얼 수정 및 보완

상담준비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서술형의 문장을 표로 재정리하거나, 용어 통일, 불필요한 설명 내용 삭제하는 등으로 매뉴얼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 부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 설명을 삭제하고 본 매뉴얼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정의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두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부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심리적 특성을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으로 변경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상담에서 주로 호소하는 고민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과 심리·행동적 양상, 보호자원을 표로 정리하여 상담개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이해 부분에서는 다문화상담과 사회정의 상담을 하나의 목차로 묶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재정리하여 상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역량 부분도 문장으로만 설명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다섯 번째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준비 부분에서는 역량점검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체크리스트의 요인이나, 정의, 기준 점수 등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역량점검 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조치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끝으로 상담준비 부분에서 자문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예: '사회정의상담의 옹호자 및 조력자로서 상담자 역할에 대한 사례 제시 등)은 본 매뉴얼을 활용할 기관의 입장, 제시할 샘플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간 합의로 결정하였다.

상담개입 부분에서는 통합적 사례개입모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상담자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상담개입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내담자의 강점 인식 및 다문화 옹호적인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술하였다.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한국사회에서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사례들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단어와 문장을 수정하였다.

연계개입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의 지원 대상 청소년, 세부 사업과 지원 가능한 언어 등의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였다. 연계개입이 단순히 사례를 유관기관에 연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협력하여 다문화 청소년에게 공동 개입하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통역 상담이 가능한 어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및 가정 대상의 서비스를 기술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령도 추가 안내하였다.

<표 41>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수정안 세부 내용

단계	목표	주요 내용	세부내용
상담준비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환경 기반조성	· 다문화 청소년 특성 및 정책의 이해	- 다문화 청소년 개념, 특성, 정책
		·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이해	- 다문화 상담과 사회정의상담 -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역량
		·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준비	- 상담자의 문화적 가치와 편향적 사고 인식 -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이해 - 문화적으로 적합한 개입전략 및 기술
		·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	- 물리적 환경구축 - 의사소통 환경구축 - 상담자 지원 환경
상담개입	다문화 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개입	· 다문화 청소년 개입의 시작	- 다문화 청소년 상담 안내 - 다문화 청소년 관계형성 - 적절한 상담계획 및 사례개념화
		· 다문화 청소년 개입의 실제	- 자존감 및 자기표현 증진 방안 - 이중문화 수용태도 향상 방안 - 진로발달 및 미래계획 증진방안 - 다문화 청소년 통합적 사례관리
		·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 개입	- 다문화 청소년 부모교육 - 다문화 청소년 부모상담
연계개입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 다문화 청소년 연계 개입방법	-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 발굴 경로 에 따른 연계 방안
		· 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 및 서비스	-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 지원 기관 및 제공 서비스
		·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령	- 다문화 청소년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보제공

Ⅴ. 논 의

1. 연구의 요약

다문화 청소년은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내로 이주한 배경을 가진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으로, 최근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구 대비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양계민 외, 2021). 그런데 다문화 청소년은 국내 문화와 부모가 속한 외국 문화를 경험하는 이중문화 토대 위에 성장함에 따라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중문화 적응과정에서 가정과 학교로 환경 체계가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및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모두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와 문화적응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승경, 양계민, 2012; 이진경, 이혜정, 2019;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Brown & Chu, 2012; Foster et al., 2015). 즉,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외모차이로 인한 차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낮은 언어능력 등)으로 인해 부적응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가족과 친구지지를 통해 자아존중감도 높게 지각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이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의 상담자들은 실태조사와 FGI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게 지각했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다문화 상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을 위해 부모교육과 상담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개입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 연계기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상담자의 요구를 반영한 개입 매뉴얼의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를 넓히고,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효과적인 상담 개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다문화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계까지 다룰 수 있는 효율적이며 현장 활용성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개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 청소년의 개입 매뉴얼의 구성 원리 및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다문화 청소년 개입 관련 매뉴얼과 다문화 청소년의 정책 및 심리·정서적 특성 관련 문헌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 중 성실히 응답에 참여한 11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으면서 다문화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기관 및 다문화 청소년지원기관 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필요한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초안이 개발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초안은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정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발굴 경로에 따라 연계 개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지원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상담개입 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 청소년과 가족이 이외의 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연계개입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매뉴얼은 크게 상담준비, 상담개입, 연계개입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상담준비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 관련 정책, 상담자 준비사항, 상담환경 구축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상담개입에는 다문화 청소년과 상담자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맺고 상담구조화 하여 효과적으로 개입을 위한 방안,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방안,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개입방안 등으로 포함하였다. 셋째, 연계개입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굴경로에 따른 연계개입 방안,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 및 지원 기관 정보,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성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초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3명과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 2명, 상담 및 심리 전공의 학계

전문가 2명 등 총 7명의 현장 및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매뉴얼의 전반적인 평가와 의견으로는 5점 만점 중 매뉴얼 구성내용의 적절성은 4.71점(상담준비단계 4.87점, 상담개입 단계 4.86점, 연계개입 단계 4.43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활용의 적합성은 4.43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4.66점의 수치를 보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드백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부터 상담자 준비사항 및 상담개입과 연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할 때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활용도가 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서술형의 문장을 표로 재정리하거나, 시각화 하고, 용어 통일 및 불필요한 설명 내용 삭제하는 등으로 매뉴얼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상담준비 단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고민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거나, 상담개입 단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 개입의 순서를 다문화 청소년 개입의 실제 뒤로 배치하고, 연계개입 단계에서는 다문화 통역 상담이 가능한 어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및 가정 대상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완의견을 받았다. 이에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 개입매뉴얼 최종 개발하였다.

본 매뉴얼은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증가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효과적인 상담 및 연계개입을 위해서는 우선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을 갖추는 것과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다문화상담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강조된 보편적 개입과 함께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강조되어야 하며(양미진 외, 2011), 상담자가 자신의 문화적 특성과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담과정에서 통합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상담이 되어야 한다(장인실 외, 202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미진 등(2011)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및 이주노동가정 청소년 대상 상담자용 개입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상담자가 다문화 상담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정의상담이론을 접목하여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자의 다문화 인식 및 편견에 대한 점검사항을 강조하였고,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위한 환경 구축 등 준비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다문화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 및 상담자가 문화 맥락과 사회체계에서 오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적 요소 등을 다루고 상담실 내부에서의 개입과 더불어 상담실 밖까지 확장하여 연계하는 사회적 옹호활동 및 예방적 접근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2. 의의 및 제언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 관련 문헌조사, 현행 법령 및 조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의 실태조사 및 FGI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 개입을 위해 필요한 공통사항을 도출하여 구성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둘째, 최근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굴 경로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청이나 각급학급, 다문화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다문화 청소년이 연계된 경우,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의 심리지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상담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지원이 이루어 진 후에는 다문화 청소년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동시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 및 지원 기관의 정보를 알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매뉴얼은 다문화 청소년 발굴 경로에 따른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현장 활용성이 높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 및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 배경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경험하는 사회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매뉴얼은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는 기관의 상담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할 때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와 편향적 사고를 점검하여 다문화 상담역량을 향상시켜 사회정의 옹호자 역할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매뉴얼의 적용 가능한 대상자는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이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국외 출생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소년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한글로 제작된 상담신청서를 비롯한 다양한 안내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소년까지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입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FGI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 소속된 실무자 10명의 요구분석을 반영하여 매뉴얼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센터 등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매뉴얼의 평가 및 자문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의 종사자뿐 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본 매뉴얼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수렴하여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지속적인 현장 적용과 활용성 검증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축적하고, 꾸준한 개선 및 정교화 작업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충실하고 유용한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재원 (2012). 다문화 호주 사회의 문화적응과 민족의 고유한 스포츠 문화참가: 한인 1.5-2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외한인연구, 27**, 7-59.

강화, 배은경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3**, 131-164.

고경자 (2017). 매스미디어가 조장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인 성 (性): 편견과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6**(2), 111-136.

교육통계서비스 (2022). 테마통계>주요지표>유초중등통계>연도별 다문화 학생수. https://kess.kedi.re.kr/에서 2022.09.30 인출

금명자, 주영아, 김상수, 김태성, 이자영 (2005).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연구 III**.

김경은, 최은희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8**(3), 75-97.

김민지 (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9**(2), 197-231.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8**(3), 6-41.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중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47-176.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1), 47-176.

김은경, 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김인규 (2009) 학부 상담학과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2),

793-811

김정민, 공보금, 강제욱, 문정준, 전동욱, 강은찬, 정도운 (2015).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6**(4), 279-287.

김정옥, 이근매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3**(1), 87-106.

김지영, 이윤석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정책적 지원 수요에 관한 분석: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1), 141-177.

김태선, 신주연 (2020).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67-692.

김혜영, 심혜원 (2014). 다문화아동상담 교육실태 및 상담자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84-284.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및 또래친구 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4**, 67-93.

박병금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71-381.

박종대, 박지해 (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8**(1), 35-63.

박하나, 손현동 (2017). 중도입국 초등학생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적용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275-303.

서미, 양대희, 김혜영 (2017).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5**(1), 197-223.

송진영, 배미경 (2015)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교정복지연구, 39**, 29-58.

송미경, 신효정, 이은경 (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신효진 (2019). 부모자녀관계와 다문화가족 지향성이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자존감 및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4), 597-604.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2019: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미진, 고홍원, 이동훈, 김영화 (2011).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어홍선, 이종숙 (2018).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및 다문화효능감의 관계.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9**, 181-199.

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I**. 서울: 여성가족부.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 거주 후 국내 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 양상과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25-146.

오계택, 이정환, 이규용 (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오수웅 (2013). 다문화사회에서 이민과 국가정체성: 루소의 사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4), 225-248.

오정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유형과 학교적응에 대한 메타분석. **학교사회복지, 45**, 159-182.

오현아, 최미혜, 박영례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간호학회, 14**(1), 35-43.

유난영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1**, 174-203.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775-798.

위주원, 최한나 (2015). 한국사회 다문화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40**, 87-130.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113-139.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3**(1), 183-224.

이유신, 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이은정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하위유형별 우울의 변화와 예측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이정숙, 송화진 (2014).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품행행동과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59-72.

이종혁, 이희조 (2022.02.23).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사라진다” …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세계 최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74590/

이지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48**, 1-24.

이진경, 이혜정 (2019). 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81-100.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243-261.

이현주, 강현아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적응. **한국사회학, 52**(1), 77-115.
임소연, 박민희 (2014).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41-1651.
임은미, 구자경 (2019). **다문화 사회 정의 상담**. 서울: 학지사.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1), 421-442.
장남혁 (2016).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통한 한필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문화정체성 형성. **선교신학, 42**, 217-247.
장혜경, 김이선, 김소영, 김혜영, 김필숙 (2014).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행 점검 및 성과평가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수정, 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전영희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 행동문제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2), 277-293.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57-85.
정하성, 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민식, 송시형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1), 53-72.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최보영, 김현아, 최연우 (2013). 탈북청소년 현장전문가가 인식하는 탈북청소년 상담

개입 방안. **청소년상담연구, 21**(2), 497-525.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하여진 (2021).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 효과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4**(3), 1-18.

한상철 (20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4), 239-258.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 탐색. **교육문화연구, 26**(3), 663-689.

행정안전부 (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정책자료>통계>승인통계. www.moi.go.kr에서 2022.03.16. 인출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정책자료>통계>승인통계. www.moi.go.kr에서 2022.01.19. 인출

허청아, 그레이스정 (2018).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경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가정과삶의질연구, 36**(4), 177-190.

황매향, 고홍월, 김진영 (2010). 초등교사의 다문화가정 아동 지도 경험.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 147-167.

Anderson, E. R., & Mayes, L. C. (2010). Race/ethnicity and internalizing disorders in youth: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3), 338-348.

Baptiste, Jr, D. A. (1993). Immigrant families, adolescents and acculturation: Insights for therapists. *Marriage & Family Review, 19*(3-4), 341-363.

Beehler, S., Birman, D., & Campbell, R. (2012).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djustment and trauma services (CATS): Generating practice-based evidence on a comprehensive, school-based mental health intervention for immigrant you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1), 155-168.

Benish, S. G., Quintana, S., & Wampold, B. E. (2011). Culturally adapted psychotherapy and the legitimacy of myth: a direct-comparison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3), 279.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

Brown, C. S., & Chu, H. (2012).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academic outcomes of Mexican immigrant children: The importance of school context. *Child development, 83*(5), 1477-1485.

D' Andrea, M., & Daniels, J. (2001). RESPECTFUL counseling: An integrative muti-dimensional model for counselors. In D. B. Pope-Davis & H. L. K. Coleman (Eds.),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multicultural counseling (pp. 417-466). Thousand Oaks, CA: Sage.

De Arellano, M. A., Ko, S. J., Danielson, C. K., & Sprague, C. M. (2008). Trauma-Informed Interventions: Clinical and Research Evidence and Culture-Specific Information Proje. Retrieved from: http://www.nctsn.org/nctsn_assets/pdfs/CCG_Book.pdf

Diemer, M. A., & Hsieh, C. A.. (2008), Sociopolitical development and vocational expectations among lower socioeconomic status adolescents of color.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3), 257-267.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W. Norton Company.

Erikson, E. H. (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WW Norton & Company.

Forgatch, M. S., & DeGarmo, D. S. (1999). Parenting through change: an effective prevention program for single m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5), 711.

Forster, M., Grigsby, T., Soto, D. W., Schwartz, S. J., & Unger, J. B. (2015). The role of bicultural stress and perceived context of reception in the expression of aggression and rule breaking behaviors among recent-immigrant Hispanic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1), 1807-1827.

Friedberg, R. D., & Brelsford, G. M. (2011). Core principles in cognitive therapy with youth.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20*(2), 369-378.

Gewirtz, A., Mohammad, J., Orieny, P., & Yaylaci, F. (2011). Adapting trauma interventions for refugee families. *The Dialogue, 7*(2), 2-3.

Goodwin, R. D.,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04). Asthma and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among young persons in the community. *Psychological*

Medicine, 34, 1465-1474.

Hays, P. A. (2008). *Addressing cultural complexities in practice: Assessment, diagnosis, and therapy* (2nd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ays, P. A. (2009). Integrating evidence-based practice, cognitive-behavior therapy, and multicultural therapy: Ten steps for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4), 354-360.

Herati, H., & Meyer, S. B. (2020). Mental health interventions for immigrant-refugee children and youth living in Canada: a scoping review and way forward. *Journal of Mental Health*, 1-14.

Igoa, C. (2013). *The inner world of the immigrant child.* Routledge.

Jun, H. (2009). *Social justice,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practice: Beyond a conventional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Griner, D., & Smith, T. B. (2006). Culturally adapted mental health intervention: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3*(4), 531.

Kataoka, S. H., Stein, B. D., Jaycox, L. H., Wong, M., Escudero, P., Tu, W., ... & Fink, A. (2003). A school-based mental health program for traumatized Latino immigrant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2*(3), 311-318.

Kia-Keating, M., Capous, D., Juang, L., & Bacio, G. (2016). *Family factors: Immigrant families and intergenerational considerations. In Psychotherapy for immigrant youth* (pp. 49-70). Springer, Cham.

Kronick, R., Rousseau, C., & Cleveland, J. (2018). Refugee children's sandplay narratives in immigration detention in Canada.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4), 423-437.

Lewis, J. A., Arnold, M. S., House, R., & Toporek, R. L. (2003). ACA advocacy competencies. Retrieved from http://counseling.org/docs/competencies/advocacy_competencies.pdf

Liebkind, K. (1996). Acculturation and stress: Vietnamese refugees in Fin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2), 161-180

Lyon, A. R., Lau, A. S., McCauley, E., Vander Stoep, A., & Chorpita, B. F. (2014). A case for modular design: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evidence-based interventions with culturally diverse yout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5*(1), 57.

Morgan, D. 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CA: Sage publications.

Major, B., Kaiser, C. R., & McCoy, S. K. (2003). It's not my fault: When and why attributions to prejudice protect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6), 772-781.

Nguyen, A. M., & Bener-Martinez, V.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 122-159.

O' Leary, A., & Romero, A. (2011). Chicano/a students respond to Arizona's Anti-Ethnic Studies Bell, SB1108: Civic engagement, ethnic identity, and well-being. *Aztlan: A Journal of Chicano Studies, 36*(1), 9-6.

Park, I. Y., & Yoo, J. P. (2018). The Effects of Korean Fathers' Acceptance of Immigrant Mothers' Native Language on Multiethnic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ir Mothers' Culture: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ticipation in Home-Country Activiti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9*(2), 27-42.

Park, G. Y., Che, Y. R., & Kim, B. R.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1), 155-165.

Patel, S., & Reicherter, D. (Eds.). (2016). *Psychotherapy for immigrant youth*. Springer.

Patel, S. G., Tabb, K. M., Strambler, M. J., & Eltareb, F. (2015). Newcomer immigrant adolescents and ambiguous discrimination: The role of cognitive appraisa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0*(1), 7-30.

Ramos-Zayas, A. Y. (2003). *National performances: The politics of class, race, and space in Puerto Ric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tts, M. J., Singh, A. A., Nassar-McMillan, S., Butler, S. K., & McCullough, J. R. (2016).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Guidelines for the counseling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4(1), 28-48.

Rettger, J. P., Kletter, H., & Carrion, V. (2016). *Trauma and acculturative stress. In Psychotherapy for immigrant youth* (pp. 87-105). Springer, Cham.

Rivera, S. (2008). Culturally-modified trauma-focused treatment for Hispanic children: Preliminary finding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8*(10-B), 6993.

Rivera S. & de Arellano M.(2008). *Culturally modifi ed trauma-focused treatment for hispanic children: preliminary finding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ld and Family Maltreatment*, San Diego, CA

Rousseau, C., Armand, F., Laurin-Lamothe, A., Gauthier, M.-F., & Saboundjian, R. (2012). Innovations in Practice: A pilot project of school-based intervention integrating drama and language awarenes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7*(3), 187-190.

Rousseau, C., Beauregard, C., Daignault, K., Petrakos, H., Thombs, B. D., Steele, R., Vasiliadis, H.-M., & Hechtman, L. (2014). A cluster randomized-controlled trial of a classroom- based drama workshop program to improve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immigrant and refugee youth in special classes. *PLoS One, 9*(8), e104704.

Sam, D. L., & Berry, J. W. (Eds.). (2006).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477-486.

Sue, D. W., & Sue, D. (201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 practice* (6th ed.). New York, NY: John Wiley.

Thordarson, M. A., Keller, M., Sullivan, P. J., Trafalis, S., & Friedberg, R. D. (2016).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immigrant youth: the essentials. In Psychotherapy for immigrant youth* (pp. 27-47). Springer, Cham.

Vera, E. M., & Speight, S. L. (2003). Multicultural competence,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Expanding our rol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53-272.

Valenzuela-Perez, A., & Arias-Valenzuela, M. (2014). Exploring refugee children' s psychological needs through storytelling: A case study of two Latino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2*(3), 172-186.

Zimmerman, M. A., Ramirez-Valles, J., & Maton, K. I. (1999). Resilienc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ale adolescents: A study of the protective effects of sociopolitical control on their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733-751.

부 록

1. 현장전문가 설문지

2. FGI 질문지

3.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평가지

1. 현장전문가 설문지

다문화 청소년 개입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문화 청소년 개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의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인적사항 등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신 선착순 200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10,000원 상당의 사례(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합니다. 전체 조사 응답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며,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평일 9시-18시).
문의: 051-662-3132

part 1 다문화 청소년 개입_기본 질문

1. 귀하의 상담 관련 경력 및 사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 (　　) 년
   약 (　　) 사례 [범위로도 지정 가능]

2. 귀하는 지금까지 다문화상담 경력이 있습니까?
   ①있다(2-1, 파트 3 응답)　　②없다(2-2, 파트 4 응답)

   2-1. 경력이 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다문화관련 상담 경력은?
   약 (　　) 사례
   (※ 다문화 관련 경력은 다문화상담 실무, 수퍼비전, 연구, 강의 등을 포함함)

   2-2. 경력이 없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다문화 상담 경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해당 사례가 없어서
② 해당 문제에 대한 개입 준비가 안돼서
③ 기타(　　)

part2 다문화 청소년 개입_내담자 특징

1. 주로 만나는 다문화 청소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①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
   ②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출생 청소년
   ③ 외국인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
   ④ 외국인가정의 외국출생 청소년
   ⑤ 중도입국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
   ⑥ 중도입국가정의 외국출생 청소년(탈북청소년 포함)

2. 주로 만나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재학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3. 주로 만나는 다문화 청소년의 나이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 9-10세(초등학교 3-4학년)
   ② 11-12세(초등학교 5-6학년)
   ③ 13-15세(중학생)
   ④ 16-18세(고등학생)
   ⑤ 19-24세

4. 다문화 청소년의 주호소 문제는 무엇입니까? (CYS-Net 주호소문제)
   ① 가족
   ② 일탈 및 비행
   ③ 학업/진로
   ④ 성
   ⑤ 성격
   ⑥ 대인관계
   ⑦ 정신건강
   ⑧ 생활습관/외모
   ⑨ 컴퓨터/정보 인터넷 사용

⑩ 정보제공
⑪ 법률정보
⑫ 활동
⑬ 기타

5. 다문화 청소년 사례의 주요 발굴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스스로
② 부모
③ 학교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 경찰
⑥ 법원
⑦ 기타 외부기관(주관식:)

6. 다문화 청소년상담과 기존 청소년상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관식:)
② 없다

7.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언어적 한계
② 문화적 배경 이해 부족
③ 라포 형성의 어려움
④ 다문화상담 준비 부족
⑤ 기타(주관식:)

8. 다문화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개를 고르세요)
① 정서적 문제 개선(우울, 불안 등)
② 외모 만족도 향상
③ 집단괴롭힘 감소
④ 가족의 지지 향상
⑤ (학교 내) 사회적 지지 향상
⑥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 향상
⑦ 한국문화 수용 태도 향상
⑧ 부모와 관련된 다문화 수용 태도 향상
⑨ 경제적 지원(문화, 학원비 등)

⑩ 기타(주관식:)

9. 귀 기관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외부로 연계하는 주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다문화관련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② 청소년 유관기관(청소년수련관 등)
③ 행정 기관(행정복지센터 등)
④ 병원
⑤ 기타(주관식:)

10.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부모상담도 함께 진행하셨습니까?
① 예(10-1~3 응답, 파트 4 응답) ② 아니오(파트 4 응답)

10-1. 부모상담에 참가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보호자

10-2. 부모의 주요 문화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① 중국(본토)
② 중국(연변)
③ 일본
④ 대만, 홍콩
⑤ 베트남
⑥ 필리핀
⑦ 태국
⑧ 캄보디아
⑨ 그 외 동남아시아
⑩ 러시아, 중앙아시아
⑪ 미주, 유럽, 대양주

10-3. 부모상담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언어적 한계
② 부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
③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
④ 자녀, 배우자와의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⑤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준비 부족

⑥ 기타 ( )

part3 다문화 청소년 개입_다문화상담 준비 정도

1. 귀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다루기 위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받은 적이 있다면 약 몇 회 정도 입니까?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3. 귀하가 받은 다문화교육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응답해주세요.
   ① 다문화 관련(가정, 청소년 등) 상담에 대한 교육
   ② 이주민 출신 국가의 역사 문화
   ③ 이주민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④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실과 어려움
   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문제
   ⑥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
   ⑦ 기타 ( )

4. 본인이 가진 다문화수용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다문화수용성: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상호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 설정(공존)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

4-1. 다양성: 다른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으며, 다른 문화 또는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 (하위요소 -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관계성: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성향(하위요소 -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3. 보편성: 경제적 수준,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종적·종교적·지역적 차이를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하위요소 -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필요한 상담자 역량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① 언어적 능력
② 다문화관련 법률과 정책(국제결혼 관련 지식 등)에 대한 정보
③ 문화 배경에 대한 지식 / 이해
④ 문화 차이에 대한 지식 / 이해
(부모-자녀갈등, 부부갈등, 고부갈등 등 관계에서 문화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
⑤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는 상담기법(미술치료, 감정카드 등)
⑥ 다문화 민감성
⑦ 내담자에 대한 편견없는 태도 (문화 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등)
⑧ 유관기관 정보 및 연계 역량
⑨ 기타 ( )

6 다문화 청소년 개입을 위한 귀 기관의 준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점 척도)

질문내용	전혀 준비 안 됨	조금 준비 안 됨	보통	조금 준비됨	매우 준비됨
다양한 언어로 만든 면접지/검사지	①	②	③	④	⑤
통역	①	②	③	④	⑤
수용적 환경 (민속적인 장식, 안내문 등)	①	②	③	④	⑤
상담자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다문화 청소년 대상 상담 매뉴얼에 포함되길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2개 선택)

① 다문화 청소년 상담환경 구축( )

②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

③ 다문화 청소년 개입 기법( )

④ 다문화 청소년 연계 방법( )

⑤ 상담자의 다문화관련 역량 내용( )

⑥ 다문화 청소년 정책 및 제도( )

⑦ 기타

8. 다음의 각 진술들에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정도를 표시하시오.

질문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한다	거의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 한다.
특정 인종 및 다문화 가정은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다.	①	②	③	④	⑤	⑥
모든 집단은 삶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사회를 위해 참여하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내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다음의 각 진술들에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정도를 표시하시오.

질문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한다	거의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 한다.
당신은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안녕과 발달을 가로막는 환경적 장애물에 대응하도록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당신은 다문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당신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 해결과 자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사회적, 전문적 활동에 참여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part4 상담자 인적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초대졸)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석사 졸업
   ⑤ 대학원 박사 수료 이상

4.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②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③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④ 전라권(광주·전북·전남)
   ⑤ 강원권
   ⑥ 제주권

5.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③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④ 기타 ( )

6.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실무자(팀원, 부원, 동반자 등)
   ② 팀장급 이상 책임자 이상
   ③ 센터장
   ④ 기타 ( )

2. FGI 질문지

영역	질문
다문화상담	• 귀 기관에 다문화 청소년 상담 사례가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 발굴 경로와 주요 연계 기관은 어디인가요?
	•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이들의 주요 호소문제는 무엇인가요?
	• 다문화 청소년 상담 개입 시 효과적인 기법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내담자 요인, 상담자 요인, 환경 요인 등)
	• 다문화 청소년 개입 시 상담 이외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멘토 활동 등)
	• 다문화 청소년 개입 시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다문화 청소년 부모 개입 시 효과적인 방법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다문화상담자 역량	•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시 필요한 상담자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문화 청소년 기관의 역할	• 다문화 청소년 개입을 위해 기관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상담환경 구축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내용, 방법 등)
	• 다문화 청소년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연계 또는 협력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매뉴얼 개발	•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매뉴얼이 개발된다면 어떤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 매뉴얼 개발 시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 등 어떤 서비스 유형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 매뉴얼이 '상담자 및 기관 준비편', '상담 개입편', '자원 활용편'으로 나뉘어 구성된다면, 각각의 영역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매뉴얼 구성이 3가지 편으로 나뉘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다른 대안 있다면 무엇인가요?)
	• 매뉴얼이 보급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나요? (예: e-book)

3.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평가지

○ 다음은 평가자의 기본 의견에 묻는 설문지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 해주세요.

1. 귀하의 현재 소속과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소속 : ② 직위: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학사졸업 ② 석사재학 ③ 석사졸업 ④ 박사 이상

5.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학 ② 심리학 ③ 청소년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

6. 귀하의 상담 및 연구 관련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⑦ 20년 이상

○ 본 매뉴얼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입니다.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매뉴얼의 내용은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 및 개입하는데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까?						
2. 본 단계별로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상담 준비					

	상담 개입					
	연계 개입					
3.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계	내용
단계별 피드백	상 담 준 비	
	상 담 개 입	
	연 계 개 입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수정/보완사항		
기타 의견		

Abstract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Intervention Manual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births among the total number of births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As a result, the numbe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s steadily increasing, and in particular,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with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reasing about five times more than that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a more complex and dynamic environment than general adolescents as they grow up on a bicultural foundation where they experienced both our culture and the foreign culture to which their parents belong. In many previous studies, not all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d maladjustment, but the degree of adapt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acceptance attitude and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interest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our society, proper intervention measures are needed to positively embrace the biculturalism they experience and to promote healthy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previous studies o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ntervention and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pecially, there is a lack of manuals necessary for counseling intervention to improv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atters necessary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methods for guardians, and for intervention in connection with juvenile-related institution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multicultural youth intervention manual that allows multicultural youth counselors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from a balanced perspective, to intervene in effective counseling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for intervention of multicultural youths to help them connect with multicultural youth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youth intervention manual,'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rocedure to modify and supplement the model through the planning, composition, and evaluation stages.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previously developed

manuals for multicultural youth intervention and literature research related to policy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extract the compositional principles and components of the intervention manu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Next, this study conducted a fact-finding suvey and analyzed 114 people who faithfully participated in the response among counselors at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across the country. Also, this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FGI) on 9 counselors with experience in multicultural youth counseling from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ions and multicultural youth support institutions in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multicultural youth population and analyzed the result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explored the components necessary for the manual and developed a draft containing the details of the multicultural youth intervention manual.

The draft of the multicultural youth intervention manual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and multicultural youth support organizations as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pecifically, this manual was developed by dividing it into three stages as counseling preparation, counseling intervention, and linkage intervention. First, counseling preparation consisted of understand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related policies, preparations for counselors, and establishing a counseling environment. Secondly, in counseling intervention, measures for effective intervention by forming a trustworthy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youth and counselors, measure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intervention measure for guardian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included. Thirdly, linked intervention was presented by classifying it into measures for linked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excavation path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formation on the types of services and support organizations that can be provided to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families, and information 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draft of youth intervention manual composed in this context was evaluated by a total of 7 field and academic experts including 3 working-level officials of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2 working-level officials of multicultural youth and family support organization, and 2 academic specialist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For the overall evaluation and opinion of this manual,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nual

composition was 4.71 points out of 5 points(4.87 points for the counseling preparation stage, 4.86 points for the counseling intervention stage, and 4.43 points for the linkage intervention stage), and the suitability of field use, an overall average of 4.6 points, was found to be good overall. However, this study received feedback on the complementary points of some manuals and revised them. Based on this process, a multicultural youth intervention manual was finally develop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rived and organized common matters necessary for multicultural youth intervention and developed an intervention manual that secured reliability and validit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various data such as literature review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survey and FGI on the actual conditions of youth-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Secondly, the role of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excavation route of multicultural adolescent at a time when the role of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became important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refore, this manual is highly useful in the field in that it was developed to enable integrated support according to the paths of discover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rdly, to efficiently consult multicultural adolescents rom a balanced perspective, iinstitutions and counselors who conduct multicultural counseling shall understand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clients and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cognize and cope with social structural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clients. Therefore, this manual presents preparations for establishing a counseling environment for institutions that counsel multicultural adolescents. Also, counselor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role and capabilities of social justice advocates by checking cultural values and biased thinking that appear when counsel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improv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Despite this significance,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First, the applicable subjects of this manual are multicultural teenagers born in Korea who can communicate in Korean. However,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orn abroad, it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various information materials produced in Korean, including counseling application form, due to difficulty in communicating in Korean.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applicable intervention manual, including adolescents who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in Korean. Secondl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workers of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and Dream Center, and FGI developed a manual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working-level officials belonging to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support center for migrant background yout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for healthy families, and youth training center.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not being able to evaluate the manual and consult with various related institutions as various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s and many experts.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an evaluation not only on those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but also on experts from various youth-related institutions, and to supplement the manual by conducting an evaluation and collecting opinions.

*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competency of multicultural counselors, receptive attitude to biculturalilsm, manual for linked intervention